

1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79.35	↓ 코스닥	814.53
	(+3.93)		(-7.90)
↑ 금리 (연간)	3.279	↑ 환율 (원/달러)	1337.00
	(+0.054)		(+2.50)

반도체 초격차 빛났다
삼성·하이닉스
고성능 제품 인기
04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고급 오마카세 vs 편의점 도시락

대출 유무 따라 빈부격차 심화 청년들 이자 폭탄에 허리띠 꼭

최근 2년 동안 기준금리가 3.0%포인트나 상승했다.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30세대부터 6070세대까지 금리인상의 빛과 그림자를 따라가 봤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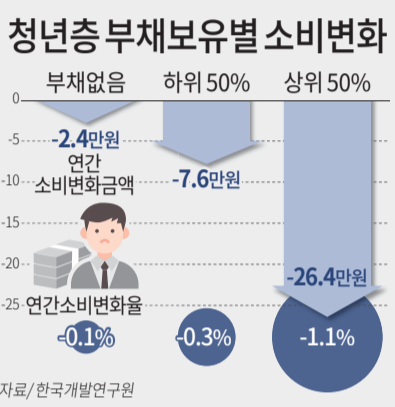
금리인상 세대별 후폭풍

(상) 2030세대

부채없는 상위층 이자소득 증가
주거대출 하위층 빚 갚느라 허덕
금리 1%p 오르면 소비 30만원 ↓
장기간 채무상환 기회 확대 필요

직장인 A씨는 최근 고급 코스요리를 먹는 재미에 빠졌다. 최근 두달간 찾은 오마카세(말김 차림)식당만 10곳이다. 가격대는 5만원 안팎부터 2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A 씨는 “단순히 한끼 식사가 아니라 취미생활로 생각하니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며 “유명 오마카세 식당을 모두 방문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직장인 B씨는 퇴근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도시락을 산다. B씨는 현재 월급 중 50만원으로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미용, 의류비를 해결하고 있다. B씨가 이렇게 지출을 줄이는 이유는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다. 그는 “전세보증금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이전계약(4년전)보다 보증금을 더 올려 이사하게 됐다”며 “보증금이 오르고 금리도 높아지면서 이자부담은 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9만9000원. 기준금리를 1%포인트(p) 인상할 경우 20대 청년이 1년 간 줄여야 하는 돈이다. 지난 2021년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5%로 3.0%p 인상했다. 1년 간 89만 6000원, 매달 7만5000원가량의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청년들이 소비를 줄인 이유는 단순하다. 그만큼 소득이 줄었거나,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 고용 하향평준화에도 빈부격차 ↑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만 29세 이하 청년(가구주)의 소득수준은 1000만~3000만원미만 42.3%, 3000만~5000만

원미만이 32.7%로 가장 많았다. 2019년보다 1000만~3000만원미만(39.2%) 비중은 늘고, 3000만~5000만원미만(34.4%) 비중은 감소했다. 5000만~7000만원미만이 같은 기간 12.7%에서 8.2%에서 감소한 것으로 봤을 때, 20대 평균 소득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고용계약은 안정적이지도 않다. 연소득 1000만~3000만원미만 가구 중 임시·일용근로자는 41.3%, 기타(무직) 44.4%였다. 20대 청년가구 10명 중 4명은 주로 임시·일용근로자나 기타(무직)업종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자산은 늘고 있다. 지난해 20대 평균 자산은 1억 3498만원으로 2019년 1억 994만원보다 22% 증가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평균 자산이 3억2638만원에서 4억 1246만원으로 26% 늘었다.

문제는 이들의 자산 대부분이 상위 20%에 쏠려 있다는 것. 2030세대 하위 20% 평균자산은 2784만원으로 전년 대비 311만원 늘었다. 반면 상위 20% 평균자산은 9억8185만원으로 같은 기간 1억1141만원 증가했다. 자산은 매월 급여로 들어오는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늘어난 자산격차 만큼 부의 대물림이 심해졌다는 의미다.



또 오르는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kWh당 8원 오른다.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한 달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우편함에 꽂혀있는 도시가스과 전기요금 고지서. /뉴시스

◆ 금리인상기, 부채상환 부담에 소비 감소

여기에 자산의 대부분이 부채로 이뤄졌다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대 부채는 2019년 3197만원에서 지난해 5014만원으로 56.8% 증가하고, 30대 부채는 같은 기간 8915만원에서 1억1037만원으로 26.8%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부채가 주로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말 청년층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비율은 30%를 차지했다. 통상 금리하락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기준금리가 낮았던 2020년 하반기부터 전월세 보증금이 오르면서 청년층의 대출 비중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전기·가스료 오늘부터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7400원 ↑

4인 가구 기준 전기 요금이 월 3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4400원 올라 매달 7400원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전기요금은 16일부터 킬로와트시(kWh)당 8.0원 인상한다. 이는 4인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가스요금도 내일부터 메가줄(MJ) 당 1.04원 인상한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인상분 1년 유예, 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리튬 확보나선 K-배터리, 中 의존도 줄이기 사활

칠레 리튬 국유화로 국제가격 상승 핵심자원 민족주의 우려 예의주시

배터리 제조 핵심 원료로 꼽히는 리튬의 안정적인 확보가 배터리 업계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중국을 필두로 생산국가가 몇몇 국가로 한정된 자원인 리튬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고 있는 주요 광물이기도 하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단일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장기 거래선을 확보하는 등 리튬의 안정적인 수급을 꾀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리튬은 최근 칠레의 ‘리튬 국유화’ 선언에 국제가격이 9% 가까이 올랐다. 배터리 업계는 당

장에 리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다고 해서 배터리 가격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배터리 업계는 고객과 주요 원재료에 대한 판가 연동 작업을 대부분 마쳐 손익의 영향을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자재 가격의 심한 변동은 부담스럽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리튬의 경우는 배터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원자재임에도 중국산의 비중이 커 배터리 업체의 리튬 수급 다각화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한국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중국산 비중이 90%에 육박

할 정도로 의존도가 심한 상황이며, 수입액 역시 21억6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90.3%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분기만 봐도 중국산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18억2000만달러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게다가 리튬 보유국 중 하나인 칠레도 정부가 리튬 생산을 담당하는 국유 기업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해당 산업의 국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나서서 자원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광물은 원래 국가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개인의 소유가 된 적은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세밀하게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를 가진 국가들이 ‘자원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향후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단일국 수입의존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장기 구매 계약 체결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SK온은 SQM으로부터 5년간 수산화리튬 5만7000톤을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레이크리소스에 지분 10%를 투자하며 10년간 아르헨티나 염호의 고순도 리튬 23만톤을 확보한 바 있다.

(4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전경련, 국민의힘에 상속세율 인하 등 10대 정책과제 건의 /사진 뉴시스
▲ 정부, 항만물류 규제개선...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 간소화 등

▲ 선관위 사무차장 딸, 충북 선관위 면접위원 3명에 만점... ‘특혜 채용’ 의혹
▲ 전여육 “문재인 前대통령이 한전을 문개버렸다”



▲ 이재명, 김기현 ‘후 코인투자’ 주장에 “전수조사하면 될 것” /사진 뉴시스
▲ 한미일, 이번주 G7회의서 정상회담 개최... 北도발 재개할까

기업 대금체불 1300조 육박... '삼각부채' 문제 다시오나

● 차이나 뉴스&리포트

3년간 '제로 코로나'에 재무 악화
"대금결제기간 평균 20일 늘어나
결제 미루고 현금보유, 갈수록 악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민간기업들이 연쇄 대금 체불의 늪에 빠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 속에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채무부담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됐다. 쌓인 대금 체불 규모만도 1300조원에 달한다.

1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내외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30년 전 중국 경제를 흔들었던 '삼각부채'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삼각부채란 쌓인 재고에 신규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이 서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은행에는 대출이 연체되는 상황을 말한다. 생산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불량 채무는



중국 베이징의 비즈니스 중점 지구를 사람들이 걷고 있다. 국내외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30년 전 중국 경제를 흔들었던 '삼각부채'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AP·뉴스시스

전체 금융시스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중국에선 1990년대 초반 긴축을 단행하면서 삼각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으며, 은행 전체 대출의 3분의 1이 부실 위기를 맞았다.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인프라 투자 등에 500억위안 이상

을 쏟아부어야 했다.

중국은행(BOC)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중국 전역의 대금 체불은 6조7000억위안(한화 약 1290조원)을 넘어섰으며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중국 미상환 대출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광동성의 한 산업용인쇄 업체 관계자는 "대금결제 기간이 작년보다 평균 20일 정도는 늘어났다"며 "기업들은 결제를 미루고 일단 최대한 현금을 보유해 운영을 하고 있어 연쇄 대금 체불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

면 설문에 응한 중소기업 가운데 83% 이상이 작년 4분기 판매한 상품에 대해 대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43%는 올해 1분기 매출채권의 기간이 작년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공산당 최고사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회의에서 "민간기업들이 직면한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국무원 야오징위안 특별연구원은 "많은 기업이 지난해 생산한 제품을 팔지 못해 재고가 늘었고, 이는 다시 상호 대금체불로 이어져 소위 삼각부채 문제로 불거졌다"며 "부진한 해외 수요는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투자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고정자산 투자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반면 민간 부문은 0.6% 증가에 그쳤다. 민간 기업의 이익은 1분기 2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덧칠정책’ 반복... 정부·정치 개혁해 국가 생산성 높여야”

중기중앙회-전경련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중소기업·한국 경제 활력위해 노동시장 개혁 절실한 상황”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사회가 활력을 잃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 문제 해결없이 매번 성급하게 반복되는 '덧칠 대책'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과거 경험이나 해외 사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치밀한 준비없이 금융, 세제, 조달 등 온갖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뚜렷한 성과없이 국가자원만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는 결국 정책 사업수 증가, 예산 증가, 조세부담 증가, 국가부채 증가, 공무원 인력 증가 등 곳곳에서 '빨간불'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초중고등교육 개혁 ▲대·중소기업 정책 전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개막 행사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환 ▲정부 개혁에 '올인'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시급히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내용은 '제3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가 개막행사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부원장이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나왔다.

고 부원장은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칠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해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부원장은 정치권은 '갈등 조정' 보단 '갈등 조정'에 앞장서고, 정부는 해묵은 정책을 반복하며 역량이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은 정부 지원·보호 수혜자, 대기업·중소기업, 교수·교사, 노동조합, 공공부문 등 기득권의 반발로 더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다만, 현재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

하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묶어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세제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자리엔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해 토론회로 막을 올린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고 부원장의 주제발표 후에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승호 기자 bada@

ICT 수출 127.7억 달러, 10개월 연속 줄어

산업부, 지난달 무역수지 23.3억 달러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수출액이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회복 지연에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ICT 수출은 127억7000만달러, 수입은 104억4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3억3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ICT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ICT 수요 회복 지연, 반도체 업황

부진, 역대 4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한 전년 동월(199.3억달러)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9% 급감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40.5%), 디스플레이(-30.5%), 휴대폰(-41.6%), 컴퓨터·주변기기(-66.7%), 통신장비(-14.7%) 등이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업황 부진에 따른 출하 감소, 단가 하락이 지속되며 시스템(-22.1%), 메모리(-54.1%) 수출이 동시 감소했고, 디스플레이는 전방기기

수요 둔화로 인한 OLED(-21.6%) 및 국내 생산 축소 영향으로 LCD(-43.9%) 수출이 타격을 받았다.

휴대폰은 글로벌 기기 수요 둔화에 따른 완제품(-42.3%) 감소와 부품 수요 둔화에 따른 부분품(-41.2%) 감소세가 지속됐고, 컴퓨터·주변기기는 전자기기 및 데이터센터·서버용 보조기기역장치 수출이 -79.9% 급감했다.

통신장비의 경우 인도(+380.3%) 등 5G 통신 인프라가 확대되는 지역은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전체 통신장비 수출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부채 상위 50%청년 연간소비 26.4만원 ↓

>> 1면 '금리인상 세대별'서 계속

이렇게 증가한 대출금은 금리인상과 맞물려 청년들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부채 상위 50%에 속하는 청년의 연간소비는 26만4000원 감소하는 반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청년의 연간소비 감소폭은 2만4000원에 그쳤다.

부채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금리상승에 따라 저축을 통해 이자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금

리상승에 따른 이자와 원리금상환부담까지 더해져 빈부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보다 대출수요가 높은 청년층의 경우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수혜층이 제한되고 효과성이 높지 않으므로, 청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며 "청년들의 경우 근로기간이 오래 남았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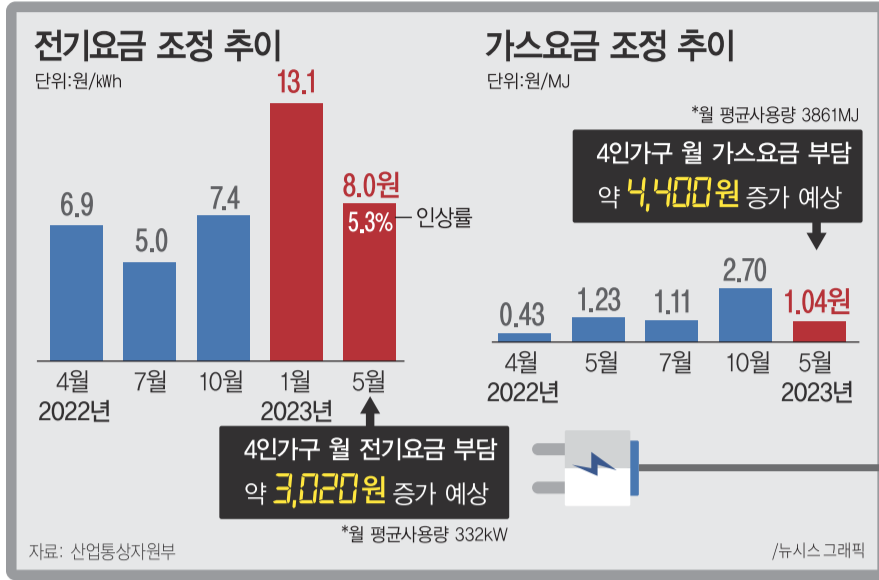
에너지공기업 겨우 숨통... 추가 인상·조정 '정치선택법' 관건

경영난 해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 내년 총선 앞두고... 향후 방향성 영향 경제계 "원가 기반 관리체계 필요"

정부가 장고 끝에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으나, 한국전력 적자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해소 등 에너지공기업 경영난 해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에너지요금 결정에 정치권이 관여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3분기 이후 추가적인 요금 인상 여부는 안갯속으로 빠져 든 형국이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한전은 2021년 이후 폭등한 국제연료가 등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인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번 2분기 요금인상으로 전기판매 수입은 2조6606억원 증가하는데 그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상반기 발생한 영업손실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제 연료가격은 안정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연료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반영시차 등이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또한 올해 1분기 요금 동결 이후 2분기 메가줄(MJ)당 1.04원 소폭 인상하면서 재정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미수금 미수금은 작년말 8조6000억원에서 1분기에만 3조원이 더 늘어 11조60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당초 가스요금을 올해 MJ당 2.6원



씩 총 4차례에 걸쳐 올려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전은 이에 전기요금 인상과 별도로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 25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계획, 자산 추가 매각 등 전력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안도 추진한다. 한전은 지난 12일 전직원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알짜 부동산인 한전 남서울본부 매각 등 사실상 실현 가능한 모든 재무개선 자구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국제 에너지시장이 안정화되더라도 국제 에너지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추가적인 에너지가격 인상을 시

사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지만, 3분기와 4분기 냉방과 난방 수요가 큰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요금 인상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 전력 구매나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공기업의 설비투자나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다. 더욱이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이호현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연내 추가 인상 계획을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원가에 기반한 전기·가스요금 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한국전력의 적자 33조원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11조원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 인

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 요금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소중립,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 절감이 중요한 만큼 요금 조정 외의 수요 관리, 에너지 시설 투자 확대 등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가 정보 공개와 원가 기반 가격 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했다. 류성원 전경련 산업혁신팀장은 "근본적으로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가격체계 정착이 시급하다"며 "용도별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 취약계층에는 인상분 경감”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소상공인·뿌리기업 분할납부 실시 한전·가스공사 자구책 긍정적 평가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며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장기간 지속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를 겪어온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요금인상을 다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인상 단가와 관련 급격한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과중될 수 있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한다"며 "사회배려계층은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발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 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내놓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직원 임금 문제 논의 과정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지향 친환경에너지 LX인터내셔널 글로벌 스마트 물류 LX판토스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하우시스 신소재 개발 LX MMA 차세대 반도체 LX세미콘

LINK FOR NEXT

LX

반도체 시장, 위기 속에도 '초격차' 기술개발 빛났다

삼성 CXL 2.0 D램 세계최초 개발
서버 운용 비용 대폭 효율화 기대
SK하이닉스 HBM3 공급 본격화
GDDR6 대체 기술로도 주목 받아

반도체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는 상황속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래를 위한 초격차를 멈추지 않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CXL(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2.0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CXL은 차세대 컴퓨터 인터페이스다. CPU와 메모리 등을 연결하면서 생기는 병목현상을 최소화하고 연결 속도도 획기적으로 늘어나 컴퓨터 성능을 대폭 높일 수 있다. 특히 서버 운용 비용을 대폭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CXL 컨소시엄에 합류해 이사회 멤버로 기술 개발을 주도해왔다. 지난해에 먼저 CXL 1.1 D램을 개발한데 이어, 2.0에서도 세



삼성전자가 개발한 12나노급 D램.

계 최초를 지켰다. 개발사인 인텔이 4세대 제온 CPU에 CXL을 지원하는데 이어, 몬타지 테크놀로지도 삼성전자의 새로운 개발 소식에 컨트롤러 양산을 발표하는 등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해왔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처음 개발한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위기



SK하이닉스 HBM3 D램. /SK하이닉스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습이다. 엔비디아 등에 HBM3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12단을 적층한 HBM3를 개발하고 차세대 제품인 HBM3E 양산도 눈앞에 뒀다. 삼성전자도 차세대 HBM3P를 양산할 계획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HBM은 D램을 여러개 묶는 패키징 기술로 성능을 극대화하는 제품이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서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추후 그래픽카드에 쓰이던 고성능 D램인 GDDR6를 대체할 기술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종전까지 메모리 성능은 미세 공정 숫자로 대표되던 상황, 반도체 업계가 인터페이스나 패키징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미세 공정 한계 때문이다. 극자외선(EUV) 장비를 도입하긴 했지만 장비 가격과 전력 소비량, 공정 난이도 상승에 따른 수율 문제 등으로 미세화가 어려워진 탓에 새로운 방법으로 성능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반도체 다운턴도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단공정을 적용하면 생산량도 급증하는 만큼, 자칫 감소 효과도 퇴색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미세공정 경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미세 공정이 사실상 메모리 성

능과 용량을 좌우하는 바로미터인데다가, 결국은 늘어날 '빛그로스'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세 공정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12나노급 D램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힌 상태다. 올해 중으로 양산에 돌입할 예정, 일찌감치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고 양산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쟁 업체보다 한단계 앞선 12.3나노로 개발 중이던 제품인 만큼, 성능과 효율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양산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12나노급 D램 양산은 계획대로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마이크론도 지난해 5세대 10나노급(1b) D램 개발 및 테스트를 공개했지만, 아직 양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UV가 아닌 구공정을 사용하는 만큼 원가나 성능에서 다소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국립대 4곳,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2025년 권역별 공동연구소 완공 목표
서울대 등 허브 연결해 교육·훈련 지원
설계·공정·소자·장비 분야별 특성화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가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와 연계해 연결망을 구축하는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대학으로 선정돼 이르면 오는 2026년 공동연구소가 세워진다. 권역 허브 4곳은 인근 대학의 반도체 연구·교육·실습을 지원하는 지역 내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사업' 심사 결과 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4곳을 권역 허브(HUB) 학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내놓은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반도체 교육과 기초연구에 있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권역별 공동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중앙 허브를 맡아 전국 반도체 관련 연구·교육·실습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는 30여 년 이상의 운영 비결을 바탕으로 반도체 연구·교육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의 선정 및 설치, 운영비



교육부가 15일 경북대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와 연계해 연결망을 구축하는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대학으로 선정했다. 사진은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전경. /연구소 홈페이지

결, 인력 훈련, 실습 기회 등 연구소 운영 및 관리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반도체공동연구소 운영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공동연구소(권역 HUB)가 이와 연계해 전국·개방형 공정 서비스 연결망을 구축한다.

선정된 대학 4곳은 권역별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건립비와 반도체 관련 장비비를 총 657억원을 지원 받는다.

권역 허브 국립대가 맡게 되는 지역

은 ▲전남대: 전남·전북·광주 ▲부산대: 부산·경남·울산·제주 ▲경북대: 대구·경북·강원 ▲충남대: 대전·충남·충북 등이다.

정부는 이번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안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반도체 팹'(Fab)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향후 권역 허브 4곳을 각각 설계, 공정, 소자, 장비 등 반도체 세부 분야별로 특성화 할 방침이다.

공동연구소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2년 간 공사를 거쳐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후 지역 대학과 인근 기업체와의 공동 활용을 전제로 특화 분야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으로 지역의 반도체 교육·연구 수요가 충족돼 반도체 전공 학생의 수도권 집중 및 중소기업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연구소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에게 공평한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반도체 인재양성 지도를 완성하는 지역 내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포스코, 직접생산 등 수급 다각화 총력

>> 1면 '리튬 확보 나선 K-배터리'서 계속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니켈·코발트·리튬부터 전구체와 양·음극재까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다.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호와 호주 리튬 광석을 활용해 수산화리튬을 직접 생산할 계획이다. 광석을 이용한 수산화리튬은 오는 10월에, 염화수산화리튬은 2024년 2분기 중에 첫 제품

이 나올 예정이다.

2030년엔 EU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요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수요가 많다.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중국산 리튬배제가 속제가 된 만큼 "중국 리튬 의존도 줄이기"를 향한 기업들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코픽스 0.12%p 하락... 주담대 금리 ↓

금융채 수신금리 인하 영향
연말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급조달비용지수)가 1개월 만에 하락전환 했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4%로 전달 보다 0.12%포인트(p) 하락했다. 금리 수준 자체만 놓고 보면 지난해 9월(3.40%)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낮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02%p 오른 3.73%를 기록했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0.01%p 오른 3.09%로 나타났다.

코픽스는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연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며 코픽스 금리도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오는 16일부터 은행권의 변동형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코픽스 금리는 주담대 등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하락했다"며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국토부, '서산공항' 재기획 용역 추진

에타 탈락에 후속대책 돌입

국토교통부는 서산공항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재기획 용역 등 후속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활주로 등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500여억 원 규모의 지역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기존 방침대로 현재 사업비(532억원)를 500억원 이하로 낮춰 에타를 피한 뒤 오는 2028년 개항하겠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5일에는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주

재로 충남도와 협력 회의를 열고 서산공항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 재기획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산공항 문제는 무산 위기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된 각 공항시설의 필요성, 규모 등을 살펴 사업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에타 면제가 추후 사업추진의 결정판인 셈이다. 지난 에타 이전에 전망된 2028년 서산공항 개항 목표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사업비 축소 등 재기획 여부, 사업 추진방안·계획 등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개항) 일정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피해자들 벼랑끝에 몰렸는데... 與野, 주요 쟁점 합의할까

(피해자 범위·보증금 반환 대책)

전세사기특별법 심사

앞서 열린 세차례 소위 입장차 뚜렷 당정, 우선매수권·장기임대 등 제시 野, 합의 실패시 단독처리 가능성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 보증금 반환 대책 등 쟁점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네 번째 만남에서 여야는 그간 쟁점이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 ▲보증금 반환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그간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전세사기 강동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강동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을 각각 발의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한 뒤 단일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세 차례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6일 회의에서

쟁점을 다시 논의한 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불투명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여야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다른 사기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으로 보증금을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행사'로 보증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과 입장이

좁혀질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제안한 '공공기관의 사기 피해자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방식도 여당에서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해당 방식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공매 등 절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여당이 '세금으로 보증금 직접 지원 불가' 방침에 대해 유지하는 만큼,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선화한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방식으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이 같은 안에 대해 검토한 뒤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그동안 보증금 채권 매입안에 대해 반대해 온 만큼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은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가 어려워지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를 위해) 가급적 노력하기로 했고 상임위 차원에서 여의치 않으면 원내지도부에서 나서서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단독 처리도 시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위 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최종 책임 지도부에 있어”... 이재명 ‘재신임론’ 부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쇄신 의원총회

당 내 상황 엄중... 李대표 사퇴 거론도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상황 바라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5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뒤숭숭한 당 내 분위기가 수습에 나섰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성토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당이 의원들로부터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및 자진 탈당 논란' 등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최종적인 책임은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초선 의원은 1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는 것은 다양한 의견 중 하나였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무거웠고 이 대표에게 재신임을 포함해서 심지어 사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시스

체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모든 현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시각이었다”면서도 “마지막 책임은 당 지도부와 당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안이했다. 터진 문제들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과 정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쇄신이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부분은 개별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의총에서 나온 이 대표 재신임론에 선을 그으며 반발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의총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신임론을 피운 의원들을 향해 “본색을 드러낸다.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히려 본인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재신임론을 두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에선 여전히 지난해 전당대회 때부터 이어진 논쟁을 계속하는 모양새다. 직전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당원 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라며 일각에 비판이 시달렸다.

친이재명계 의원실 보좌진은 이날 통화에서 “재신임론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현재 위기상황인 당의 근간을 더 흔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대표 말고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역대 최고 지지율로 당선된 당 대표를 흔들지 말아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대오단결의 시간이다. 그간 이 대표도 여러 당내부의 우려를 경청하고 인사 교체도 단행했다”고 했다.

반면, 비이재명계 의원실 보좌진은 “이 대표의 리더십 부재로 당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민생을 위한 입법과 정책 드라이브도 잘 먹이지 않고 있다”며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기 전까지만 일대오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 보여준 이 대표의 행보를 기점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현장교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尹 대통령, 스승의날 간담회 “정부 교육정책, 다양성 초점”

교원 초청 오찬... “교권 바로 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의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교육현장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원 22명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이승우·손관식 선생님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었던 최윤복 선생님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기반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이제는 지식이 많은 소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바뀐 산업기반에 맞춰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 적성을 잘 발굴해 경쟁력 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현장을 지키는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으며 정부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을 탄탄하게 바로 세우는 일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국민의힘, 내달 9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온라인 방식... 가상자산 등 자격 강화

국민의힘이 내달 9일 온라인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태영호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에서 자진 사퇴한 데 따른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한 뒤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는 모두 7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국회 법제

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맡았다. 간사는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며 위원으로 배현진 조직부총장, 홍석준·노용호 의원, 양홍규·함인경 변호사가 임명됐다. 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보궐선거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최고위 의결을 마친 뒤 같은 날 보궐선거 선관위 임명장까지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를 마친 뒤 첫 회의도 열렸다. 첫 회의에서는 최고

위원 보궐선거 방식, 후보 등록 공고일, 후보 등록 기간, 후보 자격 심사, 기탁금 등 주요 사항이 결정됐다.

먼저 최고위원 선출은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내달 9일 치른다. 이에 앞서 후보 등록 공고는 오는 26일 하기로 했다.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9~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자격 심사는 후보 등록을 마친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보궐선거 선관위원인 배현진 의원은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이전에 세운 선거 관련 부적격

자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당내에 당규상 정해진 게 있고, 이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심사 대상에 넣는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특히 보궐선거 선관위는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례를 참고해 공직선거 자격 심사 자기검증 진술서에 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도읍 위원장은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직선거 자격 심사에 있어 자기검증 진술서에 코인 등 가상자산 유무 관련 질의가 추가됐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



Enjoy Your Life

유럽제품 을 안방에서 즐기다

COCOSBAY

NAVER

코코스베이



정숙성·승차감 선사... 스포츠카, '한국타이어' 달고 질주

포르쉐·벤츠·BMW 등 파트너 활동 전기차 전용 타이어 기술력도 집중 테슬라 '모델 3'·'모델 Y'에도 공급 스포츠대회 통해 타이어 테스트 진행 람보르기니, 레이싱서 '벤투스' 장착



한국타이어 타이어를 장착한 포르쉐 718 박스터 차량.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들은 최고 성능의 타이어를 출시하기 위해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끊임없이 실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혹독한 준비과정을 통해 타이어를 개발한다. 타이어 기업에게는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테스트 노하우와 데이터가 곧 기술력이며, 브랜드의 근간이 된다.

타이어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각종 테스트 횟수와 범위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고성능 차량에 공급되는 고성능 타이어의 경우 개발 과정은 더욱 험난하다. 예를 들어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같은 고성능 슈퍼카에 타이어가 장착되기 위해선 동일한 수준의 또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타이어를 장착하여 실제로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하다. 실제 고성능 차량에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완벽한 초고성능 타이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타이어 기업 중에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지속적인 원천기술 개발과 타이어 테

스트 등 체계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고성능 차량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포르쉐부터 벤츠, BMW, 아우디, 테슬라, 람보르기니까지 주요 완성차 브랜드 대표 고성능 차량 모델과 신차용 타이어 공급 및 모터스포츠 파트너로 활동한다.

고성능 차량의 하이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타이어가 강력한 파워트레인이 발휘하는 힘을 그대로 노면에 전달하면서도 정숙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최상의 접지력과

내구성, 저소음 타이어 기술력을 통해 모든 운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원천기술 개발과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5년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와의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실제 준비 기간은 훨씬 이전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르쉐에 공급하기 위해 동등 이상 조건의 차량들로 지속적인 실차 테스트를 진행하며, 결국 엄격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다.

이를 통해 현재 4도어 스포츠 세단 4도어 스포츠 세단 '파나메라', 고성능 스포츠 로드스터 '718 박스터', 크로스



한국타이어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시리즈 레이싱 타이어 독점 공급.

오버 SUV 모델 '마칸', 슈퍼 프리미엄 SUV '카이엔'에 공급 중이다. 특히 2021년에는 포르쉐 최초 순수 전기 스포츠카 '다이칸'에 전기차 전용 고성능 타이어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

이처럼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들은 아우디의 고성능 브랜드 'RS(Renn Sport)' 라인업과 BMW의 고성능 브랜드 'M'까지 신차용 타이어 공급 파트너십 영역을 넓히는 원동력이 됐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아우디의 'RS Q8'과 초고성능 쿠페형 세단 'RS7 스포트백', 슈퍼 왜건 'RS6 아반트'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BMW의 'X3

M'과 'X4M', 레이싱카 'M4GT4'와도 함께 한다.

완성차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프로세스는 전기차 시장에도 적용됐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차가 상용화 되기 전부터 한 발 앞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 기술력에 집중했다. 그 결과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 포르쉐 '타이칸', 현대차 '아이오닉 6', 그리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토요타 등의 전기차량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 중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앞으로 더 나아가 글로벌 타이어 순위 5위내 업체들에서만 주로 진행됐던, 하이엔드급 슈퍼카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최고급 사양의 슈퍼카 실차 테스트, 슈퍼카 브랜드가 진행하는 모터스포츠 대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타이어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부터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 주관 레이싱 대회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시리즈에 레이싱 타이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2023 시즌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람보르기니 우라칸 슈퍼 트로페오 에보2' 차량은 한국타이어 '벤투스' 레이싱 타이어를 장착하고 초고속 질주를 펼치고 있다.

/양성은 기자 ysw@metroseoul.co.kr

SK케미칼, 친환경 밀폐용기 '에코 클리어'

코맥스산업과 협업해 개발 유리의 투명함과 깨지지 않는 장점 생산과정 배출 이산화탄소 낮아



SK케미칼 에코젠 소재로 제작된 밀폐용기. /SK케미칼

SK케미칼이 코맥스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소재로 환경까지 생각하는 밀폐용기 '에코 클리어 (ECO CLEAR)'를 개발했다.

SK케미칼과 코맥스산업은 SK케미칼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 '에코젠(ECO ZEN)'의 기능을 강화한 신소재 '에코젠 프로(ECOZEN Pro)'로 제작된 밀폐용기 '에코 클리어'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밀폐용기 '에코 클리어'는 SK케미칼의 에코젠 소

재로 만든 투명(CLEAR)한 용기란 의미로 제품의 특징을 그대로 제품명에 담았다. 유리의 투명함과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의 장점을 결합한 '에코 클리어'는 실리콘 패키징을 제외한 몸체, 뚜껑, 손잡이까지 모든 부분이 '에코젠'으로 만들어져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용기 내부의 내용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에코 클리어'에 사용된 '에코젠 프로'는 기존 소재 보다 내충격성 등이 업그레이드된 소재다.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고 있는 비스페놀A(BPA)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같은 성분 검출 우려가 없고 내열도, 내오염성, 내화학성이 우수해 산도가 높은 김치, 향신료나 기름진 식자재를 오래 보관해도 냄새 배임이나 변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식기세척기 같은 사용환경에서도 변형 없는 밀폐용기 제작이 가능하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타 플라스틱 대비 약 1/3 수준의 낮은 탄소 배출 효과로, '에코 클리어' 3.3kg 사용 시, 나무 2/3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코오롱인더, 전기차 타이어 시장 공략

PMR 생산시설 1만톤 규모 증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전기차 시대를 겨냥해 타이어 원료 역량을 확대한다.

코오롱인더는 전남 여수공장 고순도 방향족계 석유수지(PMR) 생산시설 1만톤 규모를 증설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1.1만톤에서 2.1만톤으로 생산 능력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이다.

PMR은 열 안정성과 점-점착성을 높인 석유수지로 ▲고성능타이어 ▲전기 케이블 ▲위생재 등에 특수 첨가제로 쓰인다. 특히 고무 타이어의 내구성을 강화해 배터리 탑재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약 30% 더 무거운 전기차의 노면

제동력과 주행 안전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

경쟁사 대비 원료 수급 안정성과 원가경쟁력 우위까지 확보하면서 스페셜티 석유수지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석유수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준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업5본부장은 "고급 차량 중심의 고성능 타이어 시장이 전기차로 확대되면서 고객사 주문에 적기에 대응하고자 발빠르게 생산능력 증강에 나서서 "국내 1위 석유수지 업체로서 스페셜티 사업을 본격 확장해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수익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삼성, 무풍 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선포

ASA소재·엣지 라이팅 적용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도 최고 럭셔리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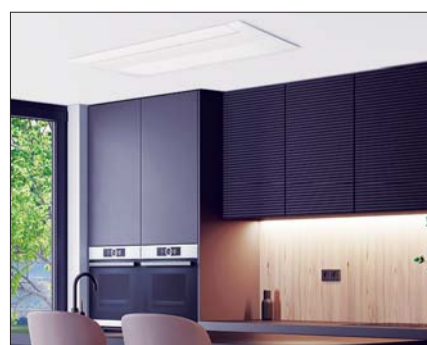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31일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 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업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운영하는 프리미엄 제품군이다. 지난해 냉장고와 오븐 등 키친패키

지를 출시한데 이어 이번에 무풍 시스템에어컨으로도 새로 확대했다.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 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공간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변형이나 변색이 적은 'ASA' 소재에 분위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하는 엣지 라이팅을 적용했다. 밝기는 조도 센서가 조절한다.

일반 동작보다 최대 61% 소비전력을 아껴준다. 전 모델이 에너지 소비효율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 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출시한다.

1등급, AI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소비전력을 최대 20%까지 절감해준다. /김재웅 기자 juk@

삼성디스플레이, 2년 연속 무분규 타결

임금·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다시 손을 잡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5일 아산1캠퍼스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윤성희 People팀장(부사장)과 유하람 열린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대표와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월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해 15차례 교섭을 거쳐 지난달 27일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화를 통한 무분규 타결이다.

윤성희 삼성디스플레이 People팀장(부사장)은 "소통과 신뢰로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올해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보여준 모습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회사는 앞으로도 노사 관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2K 활약에 3N 체제 흔들… 1위 독주 ‘넥슨’도 긴장

(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국내 게임업계 1분기 실적 공개

넥슨 전년비 36% ↑… 최대 매출
엔씨소프트·넷마블 신작 부재에 ↓

크래프톤 3% 성장하며 2N 제쳐
카카오게임즈 신작 반영… 6.45% ↓

국내 게임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 공개가 대부분 마무리 됐다. 역시 넥슨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큰 예상을 빚나가지는 않았다. 다만 눈에 띄는 점은 크래프톤이 엔씨와 넷마블의 영업이익을 제쳤다는 점이다.

이대로 국내 게임을 대표하던 3N(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체제가 없어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 3N중 넥슨, 2K중 크래프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올해 1분기 매출 1조 1920억 원, 영업이익 54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 4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셈이다.

넥슨은 “피파온라인4, 던전앤파이터 등 대표 PC 라이브 타이틀의 안정적인 성과와 피파모바일, 블루 아카이브 등의 안정적인 매출과 모바일 게임의 흥행이 실적을 이끌며 역대 최고 매출과



/각사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매출 4788억원, 영업이익 81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9%, 67% 급감한 수치다. 이는 리니지W 매출이 출시효과를 누리지 못하면서 감소한 결과다. 아울러 1분기 매출을 대변해 줄 신작이 부재했다는 점도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넷마블은 5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넷마블의 1분기 매출은 6026억원, 영업손실 28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더 증가했다.

넷마블도 엔씨와 마찬가지로 신작부재와 기존작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이

유로 들었다. 여기에 경쟁사와 2배 이상의 인건비, 마케팅비, 수수료 등 지출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점도 존재한다.

게임 업계종사자는 “다양한 장르를 통해 신작을 다수 선보인 넥슨의 활약은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기록할 것”이라며 “반면 엔씨와 넷마블은 지속적인 신작부재와 기존작들의 매출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경쟁작들이 대거 출시를 앞둔 상황에 경쟁력을 위해 탄탄한 구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3N의 희비가 갈린 가운데 신흥 강자로 떠오르던 2K(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의 활약이 눈에 띈다.

특히, 2K중 크래프톤이 올해 1분기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을 제치면서 업계 이목을 끌었다.

크래프톤은 매출 5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성장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830억원으로 9.3% 감소했지만 신작부재를 감안하면 선방한 수치라는 평이다.

특히 크래프톤의 PC 배틀그라운드 유료화 콘텐츠 전략이 매출이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탄탄한 IP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해외 매출이 9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내용을 뒷받침한다. 실제, 크래프톤의 올해 영업이익은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를 제쳤다.

카카오게임즈는 1분기 매출 2492억원, 영업이익 11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4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3.05% 줄었다. 올해 3월 출시된 아키에이지와 에버소울 등의 신작들의 성과가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딘:발할라 라이징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영향도 크다.

◆ 현재 1위 넥슨 안심할 수 없어

이처럼 3N과 2K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반기 신작이 대거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넥슨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실적반등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도 앞서 상황을 뒷받침한다.

특히 넷마블은 그간 지속된 신작부재에서 탈피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판호라는 카드도 꺼내들 계획이다. 넷마블은 2분기 ‘신의 탑: 새로운 세계’, ‘나 혼자만 레벨업:ARISE’, ‘아스달 연대기’ 등 멀티플랫폼 기반의 신작 9종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아울러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게임을 현지에 출시할 계획이다.

엔씨는 리니지 시리즈의 대규모 업데이트에 집중한다. 또 PC·콘솔 신작 ‘쓰론 앤 리버티’(TL)의 베타테스트(시범서비스)에 기대를 걸고 있다.

크래프톤도 디펜스 타격을 필두로 글로벌 퍼블리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에 총력을 다한다. 또 자체 개발 게임과 크리에이터 발굴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카오게임즈도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2D 픽셀 그래픽의 횡스크롤 액션 RPG ‘가디스 오더’, 블록체인 게임 ‘보라베틀’ 6~10종 등 다채로운 신작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게임업계 종사자는 “게임 하나가 회사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듯 관측은 신작이 흥행하면 탄탄한 IP를 통한 실적 효과는 대단하다. 지난해부터 부진했던 실적의 반등을 꾀하기 위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재 1위인 넥슨도 안심하기는 어렵다. 업종 특성상 지각변동의 호흡이 짧기 때문.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놔야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LS일렉트릭 “베트남 1위 다지고 亞에 각인”

‘일렉트릭 에너지쇼’ 참가
스마트 전력솔루션으로
현지 맞춤형 제품 공개

LS일렉트릭이 아세안 전력 시장에 차세대 전력 솔루션을 선보인다.

LS일렉트릭은 17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ICE에서 열리는 2023 일렉트릭 에너지쇼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LS일렉트릭은 ‘스마트 전력솔루션으로 열아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메인 콘셉트로 참가했다. 이를 통해 저압 전력기기 시장 점유율 1위를 더 공고히 하고 아세안 전력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부스는 108㎡ 규모로, ▲그린 에너지(Green Energy Solutions)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Solutions) ▲스마트 배전(Smart Distribution Solutions) 등 3개 테마를 중심으로 현지 시장 맞춤형 제품을 공개한다.



LS일렉트릭 ‘2023 일렉트릭에너지쇼’ 전시 부스 조감도.

특히 차세대 그린 스마트 전력 솔루션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직류(DC)·교류(AC) 제품 솔루션을 대거 소개한다.

아울러 LS일렉트릭은 해상풍력발전 맞춤형 ▲친환경 변압기 ▲g3 GIS(가스절연개폐기) ▲친환경 전력변환기(리액터) 등을 전시한다. 해상풍력단지에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절연소재 적용 전력기기 사용이 필수적으로 현지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

로 기대된다.

LS일렉트릭은 최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g3가스 적용 170kV급 가스절연개폐기(GIS) 상용화에 성공하고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g3가스 적용 친환경 가스절연개폐기는 절연 가스를 기존 SF6(육불화황)가스를 친환경 g3가스로 대체해 지구온난화지수(GWP)를 90%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한 제품이다.

전력 관리 플랫폼 ‘그리드솔 큐브’(Gridsol Cube), 전력 설비 자산 관리 최적화를 가능케 하는 자산관리 플랫폼 ‘그리드솔 AMS’(Asset Management System) 등 디지털전환(DX) 솔루션도 함께 전시한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전력기기 수출 3위 국가로 성장한 베트남 시장 점유율 1위 지위를 공고히 하고 아세안 고객에게도 기술력을 확실히 각인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지 전력시스템 사업에 투자와 맞춤형 전략 제품을 앞세워 베트남과 아세안 지역 시장 확대에 속도낼 것”이라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 U+, 인천 전세버스에 음주측정기 공급

운송사업조합·아이티엠티 협업
2000여 대에 도입… 운영 지원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음주운전 차단장치 도입, 재범자 면허 영구박탈·차량 몰수 법안 추진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LG유플러스는 인천광역시 2000여 전세버스에 디지털 음주측정기를 공급,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인천광역시 소속 전세버스에 음주측정기를 도입하고 버스 관제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주식회사 ‘아이티엠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 전세버스 조합 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LG유플러스 임방현 서부기업영업담당(상무), 인천 전세버스 조합 장병일 이사장, 아이티엠티 양연



LG유플러스 임직원이 디지털 음주측정기를 시연하는 모습. /LG유플러스

희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G유플러스와 아이티엠티는 인천 전세버스 조합 산하 41개 회원사, 소속 버스 2000여 대에 디지털 음주측정기 및 차량종합관제 서비스(DTG)를 공급하고 운영·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인천 전세버스 조합은 모든 산하 운수사에 시스템 설치 안내 및 협조를 구하고 아이티엠티는 시스템·기기 공급을, LG유플러스는 IoT 무선통신회선 공급을 맡는다.

/채윤정 기자 echo@

금호피앤비화학, ‘ISCC PLUS’ 획득

(국제 친환경 인증)

재활용 벤젠 사용한 5개 제품

금호피앤비화학이 자사 5개 제품에 대해 국제 친환경 인증인 ‘ISCC PLUS’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SCC PLUS 인증은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따라 제품 생산과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해 부여하는 국

제 인증 제도다. ISCC는 투명한 심사 기준과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친환경 인증 분야에서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금호피앤비화학은 페놀, 비스페놀A, 에폭시 등 페놀유도체와 큐멘, 아세톤의 기준 원료인 벤젠을 저탄소 계열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벤젠은 페플라스틱 열분

해 처리 방식을 포함해 순환경제 달성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올해 3분기부터 재활용 벤젠을 사용한 ISCC PLUS 인증 제품 공급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고객들과 공급망 차원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성 금호피앤비화학 대표는 “당사의 ISCC PLUS 인증 제품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T엠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정보 취약계층 위해 8년 연속 갱신

국내 알뜰폰 1위 기업 KT엠모바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품질마크’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KT엠모바일은 정보 취약계층의 다이렉트 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 2016년도부터 올해인 2023년도까지

8년 연속으로 웹 접근성 인증을 매년 갱신 중이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접근 약자가 웹 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1년 동안 인증하는 제도이다. /채윤정 기자

동아오츠카

스파클링
멀티비타민

오로나민C



비타민B,C 별꽃 아미노산이
오늘의 생기와 활력을 확실히 올려드립니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부드럽고 달콤한
치약산 별꽃



레몬 11개분 (300g 기준)
비타민 C



비타민 B2, B6



아미노산 함유



인공색소, 보존료
무첨가



비타민 보호 갈색병

CEO리스크·MSCI 편입 불발에도 개미들은 에코프로 '하따' 움직임

KRX, 5일만에 에코프로 20% ↓
고평가 논란 외국인·기관 매도 속
개미, 올 에코프로 2조 넘게 매수
증권가 '과열구간' 매도·중립 의견

오너 리스크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 터내셔널(MSCI) 편입 불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장주'였던 에코프로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증권계에서도 고평가에 따른 '매도' 의견이 제시됐던 만큼 주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반등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단 5일 만에 20.35%가 급락했다. 최고가인 82만 원을 기록했던 지난달 11일과 비교해서는 한 달여만에 32.9%가 폭락한 모습이다. 8일 기준으로 에코프로 주가는 연속 내리막을 탔으며, 15일에도 전장 대비 4.23% 하락 마감했다. 2차전지업종의 강세를 주도하던 에코프로의 하락세는 개미(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 개미들은 올해만 에코프로를 2조 이상을 사들였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지난 11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구속과 MSCI

한국지수 편입 불발까지 겹친 현 상황을 짚으며 에코프로의 추가 반등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당초 MSCI 한국지수 편입 유력 후보였던 에코프로는 추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편입이 불발됐다. MSCI는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선정한다.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 수급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도 "에코프로의 경우 극단적 가격 상승 조건에 의해 편입이 불발됐다"고 분석했다. MSCI는 지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극단적 주가 상승 배제' 조항을 도입했다. 해당 조항은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해 여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수 편입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그 기준에서 배제됐을 것이라는 풀이다.

에코프로를 두고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면서 외국인·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흔들리는 주가흐름

에도 개미들은 '하따(하한가 따라잡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너 리스크가 터졌던 11일에 개인 투자자들은 26억 원 가량을 순매도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12일에는 512억 원 어치를 바로 순매수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일전부터 에코프로를 비롯한 에코프로 그룹 종목에 대해 '과열구간'이라고 평가하며 투자 의견을 매도 혹은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12일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에 대해 "현재 시가총액이 5년 후 예상 기업가치를 넘어섰다"며 "동종 업계 기업 중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 된 위대한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매도'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에코프로의 미래 예상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주가수익비율(PE R)은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며 "PER이 높다고 하는 것은 고평가됐다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높은 PER로 평가되고 있지만 45.75배 선이다. 하지만 에코프로의 15일 PER는 364.08로 평균치를 압도적으로 넘겼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수도권 연립주택 전세거래 비중 다시 늘어

전셋값 내리고 금리 상대적 하락
작년 전세비중 50%로 떨어졌다가
지난 2월부터 전세 거래량 회복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연립 다세대 전세 거래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등으로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전세 거래비중이 50%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2011년 전월세 실거래가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올해부터 다시 전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연립 다세대 전세 거래량이 월세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지만, 2월부터는 다시 전세 거래가 늘어나면서 전세와 월세 거래량 차이가 다소 벌어지고 있는 것.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전세 거래량 비중은 지난해 12월에 49.7%로 월세 거래량 비중(50.3%)에 뒤처지기도 했지만 올해 1월 이후 전세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해 12월에도 53.1%로 여전히 전세 거래량 비중이 월세 거래량 비중에 비해 높았으나, 2017년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비중이다. 경기 전세 거래량 비중은 지난 1월에 49.0%로, 월세 거래량 비중(51.0%)에 역전을 당했다.

수도권 지역의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셋값을 2년 전 동일 시점의 평균 전셋값과 비교했을 때 두 가격 간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 전셋값(563만원)이 2년 전 가격(452만원)에 비해 3.3㎡당 111만원이나 높았는데 지난해 10월(560만원)에는 2년 전 가격(539만원)에 비해 3.3㎡당 21만원 높다. 올해 2월에는 평균 550만원에 거래되며 2년 전보다 4만원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인천은 지난 2021년 1월 2년 전 가격보다 3.3㎡당 59만원이 높았으나, 지난해 10월에는 평균 230만원으로 2년 전 거래가격인 221만원보다 9만원 높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의 경우 각각 75만원, 22만원 높았다.

반면, 지난해 11월 인천 전셋값이 평균 224만원으로 2년 전 평균 가격인 232만원보다 3.3㎡당 8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며 평균 거래가격이 내려갔다. 경기 지역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12월에는 313만원으로 2년 전 평균 가격(321만원)보다 3.3㎡당 8만원 낮은 금액에 거래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 거래가 주춤했던 지난해 4분기에는 전세 거래보다는 월세 거래가 늘면서 전·월세 거래비중이 1대 1 수준까지 갔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전세 비중이 커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

外人, 네이버·삼성전자 매수 '대형주 주목'

CFD 이슈등에 국내증시 '박스권'
이번주 코스피 예상밴드 2420~2550
반도체 보다 '실적주' 우위 예상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이 부진한 소형주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슈, 에코프로 급락세 등 국내증시에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대형주의 비중을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93포인트(0.16%) 오른 2479.35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7.90포인트(0.96%) 하락한 814.53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으나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며,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떨어지는 등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여파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데다 미국 부채한도 문제, 경기침체 우려, 지역은행 부실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증시가 물가 안정에도 지역은행 위기 재부각, 부채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열로 부진했던 점이 한국증시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진행



15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2475.42)보다 3.93포인트(0.16%) 상승한 2479.35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22.43)보다 7.90포인트(0.96%) 내린 814.53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4.5원)보다 2.5원 오른 1337.0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증시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시 상승을 이끌 만한 호재도 없어 당분간 국내증시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밴드로 2420~2550을 제시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하강 인식에 따른 모멘텀 부족은 주가 상단을 제한한다"며 "주식시장 흐름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성장 기대감이 높은 코스피 대형주와 실적주, 연초 랠리에서 소외됐던 종목, 주가 부담이 없는 종목 등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중·소형주들의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네

이버(2248억원), 삼성전자(2227억원), 현대차(1743억원), 기아(1260억원), LG전자(840억원) 등 대형주 중심으로 순매수했다.

최유준 연구원은 "주가 바닥을 확인한 후 짧은 간격의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주도주가 압축되는 과정이 나타난다"며 "현재 이차전지업종의 우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박스권 장세에서는 반도체보다 실적주 우위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혁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시 조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형주 수익률이 대형주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에서 외국인·기관의 순매수와 낮은 신용잔액 비율을 갖춘 종목이라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예탁결제원 '넥스트 KSD 추진단' 설치

현안 선제 대응 '조직개편' 추진

한국예탁결제원이 이순호 사장(사진) 취임 후 약 2개월 만에 조직개편을 나섰다.

15일 예탁원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 정책 및 시장 동향 등 대외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조직의 시너지 및 효율성 제고,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넥스트 KSD 추진단'을 본부급으로 설치해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시장성 기업에 적합한 비전과 전략체계 재정비, 신규사업 개발,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증권과인신신본부도 신설해 경쟁업무의 대외경쟁력과 수익성을 강화하고, 글로벌본부 내 후선인력을 현업조직으로 전진 배치해 급증하는 해외주



식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토근증권(ST) 등 혁신금융상품 대응, 신종 수익증권 수용, ESG경영 강화, 윤리·인권경영 내실화,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 및 재해복구체계(DR) 관련 조직도 정비한다.

조직개편 후 조직 규모는 조직개편 전과 비교해 감소했다. 이는 소규모 조직의 축소 및 통폐합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순호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속도와 효율"이라며 "하루빨리 조직구조를 혁신해 조직에 활기와 생동감을 불어넣고,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시장과 국민이 신뢰하는 혁신 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치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스타트업 코리아, 세계 최고 수준 ‘창업환경 조성’ 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 ‘다산다사’형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기술창업 관련 대문 통해 의논할 것 수출 지역·제품 다양화하는 것 중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을 위한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상품인 ‘노란우산’ 제도를 개편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재난지원금 지급 등 첨병 역할을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창업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최소화화를 위한 범부처 신고센터도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코트라(KOTRA)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전진기지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독립을 모색한다. 스마트공장 예산도 내년엔 더욱 늘려 제조 중소기업들의 제조 혁신을 추가로 돕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취임 1주년을

계 최고 수준의 창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를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입히고,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다산다사’형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안전망도 더욱 강화한다.

이 장관은 “노란우산 기금이 굉장히 많다. 관련 기금이 소상공인들의 튼튼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개편안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을 국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소진공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소진공에)외부 전문가도 추가 수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창업 유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피해금액도 커지고 있다. 범부처가 힘을 모아 일원화된 신고센터를 만들 것이다. 이는 ‘대문’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를 통해 기술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은 대문을 통해 의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은 2021년 1155억 달러, 2022년 1145억 달러로 2년 연속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수출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전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제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1호를 연데 이어 6월 중엔 사우디아라비아에 추가로 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가진 프리젠테이션에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2(이).0(영)’을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임을 전하기도 했다.

2008년 당시 수출 업무가 중소기업청에서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KOTRA가 맡고 있는 관련 업무에 대해선 “코트라 해외에선 공관으로 등록이 돼 있다. 그렇다보니 코트라가 관장하는 GBC에 입주한 우리 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법인)은행계좌도 만

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코트라 산하의 GBC를 독립시켜야 한다. 코트라를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통째로)이 관하는 문제가 아니다. 협업을 통해 GBC가 입주기업의 수출 지원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적성국이 아닌 이상 (모든 곳에)수출을 해야 한다. 제3의 수출국을 개척하는 것도 속제다. 중국도 그 중 하나다. (코로나 이후)중국도 개방을 한 만큼 수출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의 제조 혁신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장관은 “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디지털·스마트화는 절실하다.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내년엔 올해보다 관련 예산을 증액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장관은 개각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소상공인 특별전... “온라인서 축제 즐겨요”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 엔데믹 맞아 지자체와 지역행사 연계 봄·가을·겨울 각 세 번 걸쳐 진행



지난 9일 대전 중구 으스정이 스카이라드에서 열린 동행축제 개막식 행사장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e커머스 기업들은 각기 다른 일정으로 행사를 소화하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와 가장 가깝게 맞닿은 유통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위해 힘을 합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e커머스 기업들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해 대거 참여한다. 참여하는 기업과 지역의 행사는 각기 서로 다른 일정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최하는 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행사다. 올해는 봄, 가을, 겨울 각 세 번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엔데믹(풍토화)을 맞아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팬데믹 피해 회복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행사에 연계했다.

자에게 최대 2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롯데온 관계자는 “중소상공인의 우수 상품을 알리고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동행축제에 참가한다”고 말했다.

현대홈쇼핑도 28일까지 현대H몰과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쇼라에서 ‘동행축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현대H몰을 통해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대용량 물티슈 등을 최대 29% 할인가에 판매하며 쇼라에서는 육류, 세제와 샴푸 등 생활용품 카테고리의 라이브방송을 진행해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현대홈쇼핑이 꼽은 쇼라대표 상품으로는 23일 오후 2시 방송되는 영주한우 등심과 간장꽃게장이 있다. 여기에 더해 현대홈쇼핑은 행사기간 고객 1인당 최대 17%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LF 트라이씨클은 입점 업체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행축제에 참여를 결정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합리적

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하프클럽과 보리보리는 이 기간 패션, 식품, 리빙, 육아용품 등 카테고리에서 총 700여개 상품을 선보인다.

하프클럽은 봄나들이를 위한 의류부터 가정의 달 선물용 건강식품, 집들이 선물세트 등 대상 상품에 사용 가능한 20% 장비구니 쿠폰을 지급한다. 또, 우수 소상공인 상품 구매고객 100명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인터파크쇼핑은 최대 3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쇼핑 혜택과 판매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전 동행축제 행사에서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2개월 동안 입점 소상공인들은 직전 2개월과 비교해 상당한 매출 증가 효과를 본 바 있다. 유모차, 스포츠용품 등을 판매하는 ‘세이프웨이’는 543%,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콜롬비아헬스케어’는 361% 거래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은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아이에스시 1분기 매출 464억 달성 전년 대비 11% 증가



아이에스시가 반도체 시장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다.

아이에스시는 1분기 매출 463억8000만 원에 영업이익 97억8000만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이 11% 성장한 것. 영업이익이 38% 감소하긴 했지만, 시장 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다.

아이에스시는 비메모리 서버 펌리스와 R&D향 소켓 매출이 성장을 지속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근 들어 비메모리용에 투자한 덕분에 메모리 시장 악화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주력 제품군인 실리콘 러버 소켓의 서버 및 GPU 테스트 소켓 수주도 지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투자를 본격화한 포고 소켓 매출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상반기까지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하반기부터는 업턴으로 매출 10% 이상에 영업이익 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아이에스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펌리스 고객사들의 양산 물량 수주가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메모리 비중은 7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베트남과 국내 양산 라인의 공정개선, 원가절감을 통해 영업이익률 제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두산에너지빌리티, ‘신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 제작

원자력산업 생태계 부활 신호탄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경북 울진 일대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공급할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 제작에 착수했다.

15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경남 창원 본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개최했다. 앞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지난 3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 두달 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원전 주기기는 핵연료를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 발생한 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발생기,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발전기 등 핵심 설비를 말한다. 이날 행사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가는 증기발생기의 초기 제작 현장을 공개했다. 자체 용광로를 통해 생산한 200톤 규모의

합금강을, 1만7000톤 프레스를 이용한 단조 작업을 통해 증기발생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과정이다. 1만7000톤 프레스는 성인 남성 24만명이 동시에 누르는 것과 같은 힘을 낸다고 두산에너지빌리티 측은 설명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외에도 원자로, 터빈발전기, 원전 계측제어설비(MMIS),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등 주요 기기를 신한울 3·4호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번 주기기 제작을 위해 국내 460여개 원전 협력사와 합

을 모은다.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 부품과 제작 과정에 필요한 기계가공, 제관제작, 열처리 등의 업무를 국내 협력사에 발주한다. 이미 지난해 약 320억 원을 조기 발주했고, 올해는 약 2200억 원 규모의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 3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약 2조 9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신한울 3·4호에 들어가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핵심 주기기를 제작, 공급한다. 경북 울진군에 건설되는 신한울 3·4호는 각각 2032년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양성운 기자 ysw@

원전 산업 정상궤도 안착... 신한울 3·4호기 제작 착수

올 3.5조 규모 일감 공급 추진
SMR 필두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4500명 육성 목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전 정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에 이어 2조원 규모 보조기 발주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원전 일감이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5일 창원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 개최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과 이어진 ‘원전 생태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출범 1년 원전 정책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이날 본격 착수한다. 또 탈원전 기간 일감절벽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원전 생태계에 신속히 일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을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 작년 2조4000억원 규모 일감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 3조5000억원 규모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3월 29일 체결된 주기기 공급 계약에 따라 향후 10

년간 2조9000억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되고, 이어 5월부터는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보조기 계약(총 192건)도 순차적으로 발주된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연내 완전 정상화 기조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건설에 과거보다 빠르게 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두산에너지빌리티와 힘을 합쳐 1차년도 공정률을 높이고,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도 최대한 빨리 집행해 원전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건강한 공급망 유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매출 급감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도 시행한다. 지난해에만 정책자금, 협력업체 대출 등 약 4000억원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3월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두산이 공동으로 2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프로그램도 추가 조성했다.

정부는 출범 후 1년간 탈원전으로 붕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집중했다

면, 앞으로는 정상화된 생태계 재도약 기반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 ‘원전산업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원전 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미래 대비 관점에서 SMR(소형 모듈원전)을 필두로 하는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한국형 원전(APR)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대상국 규제요건 충족기술 개발,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수요국 노형 맞춤형 원전 기기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기술, 재생에너지 연계 최적화 시스템, 열 직접 공급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을 통해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원전 공기업, 민간은 향후 5년간 2조원을 원자력 연구개발에 투자해 국내 원전산업의 세계시장 선도와 중소·중견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원전산업 재도약을 이끌 우수인력 양

성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이에 2030년까지 원전산업 전문인력 4500명 육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한다. 석·박사급 고급인력 1000명과 학사급 전문인력 1000명 양성을 위해 ‘차세대 원전 융합대학원’, ‘원전 수출 특성화과정’ 등 대학원 중심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원전 설계 실습교육 프로그램’ 등 이공계열 전공자 원전산업 유입 기반도 마련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현장 맞춤형 실무인력 2500명 공급 지원하고, ‘원전산업 인재개발원’ 및 ‘원자력 정책연구원’ 등 원전 산업 인력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해외원전 수주 성사와 기자재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포함한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원전 정책과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강소특구 성과서 포항·김해 가장 높은 평가 받아

포항 학·연 융합 오픈랩 7개 운영
기술 이전·투자연계 평균 크게 상회
김해 대형병원 납품 밸류체인 구축
의생명·의료기기 등 특화 분야 집중

강소 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성과 연차평가에서 경북 포항과 경남 김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강소 연구개발특구 14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성과 연차평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각 강소특구의 공공기술 이전, 투자유치, 기술창업 실적 등 정량

적인 부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단·지자체의 특별한 노력 등 정성적인 부분을 균형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1기 강소특구는 지난해 사업 3년차로서 그간의 투자를 기반으로 본격적 성과 창출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이다.

경북 포항 강소특구(첨단신소재)는 포항공대의 원천기술,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실용화기술을 연계하는 학·연 융합 오픈랩을 7개 운영하고, 이를 다시 포스코 사내벤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우수한 산·학·연 연계 기획 창업 시스템을 갖춘 덕분에 공공기술 이전(73건), 특구기업 투자연계(477억

원) 실적이 강소특구 평균(29건, 104억 6000만원)을 크게 상회했다.

경남 김해 강소특구(의생명·의료기기)는 국내 대형 제약회사와 연계된 연구소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고, 대형병원에서의 특구기업 제품 임상시험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실증된 제품을 대형병원에 납품하는 밸류체인이 탄탄히 구축돼 있었다. 또 작년 연구소기업 창업(8개사) 실적이 전부 의생명·의료기기 분야에 해당하는 등 특화 분야에 집중하여 성과를 내고 있었다.

2기 강소특구는 사업 2년차로서 생태계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단계로서, 서울 흥릉, 충남 천안·아산이 가장 우수하

다는 평가를 거뒀다.

서울 흥릉 강소특구(디지털헬스케어)는 특구기업을 위해 싱가포르, 독일, 중국, 프랑스 등 해외 진출거점을 마련하고, 1~2억원 규모부터 수십억원 규모까지의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또 전(前)임상 단계에 있는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병원·제약사·규제·투자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컨설팅 플랫폼을 매일 운영하는 등 지원 시스템을 잘 갖췄다.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차세대자동차부품)는 모빌리티와 과학기술에 특화된 투자협업체를 신설하고, 특구기업의 싱가포르,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며, 특구기업과 대·중견기업 협력을 성사시키고 수출까지 연계하는 등 우수한 기술사업화 여건을 갖췄다.

3기 강소특구는 사업 1년차로서 지정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존 특구의 노하우를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강원 춘천(바이오의약신소재)은 다양한 지원수단들을 모듈형으로 구비해 공백·중복없는 기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 서구(환경오염처리·관리)는 특구기업과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연계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우수 특구 포상, 우수사례 확산, 미흡부분 보완 등에 활용해 앞으로의 사업 성과를 제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정 기자 echo@

‘국회 MWC’ 개최... 여야 “ICT 산업 위한 제도적 지원”

국회과방위·과기정통부 공동 주최
삼성전자·SKT 등 대기업부터
중견·스타트업 정보통신사 참여

한국판 MWC(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를 표방하는 ‘국회 MWC 2023’이 15일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최로 열렸다.

행사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전시 참여 기업의 최신 제품 및 혁신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회 MWC 2023은 전시회, 간담회, 세미나 등 3개로 열리며 의원회관 3층 로비 전시실에서 이틀간 열리는 전시회는 국내 유수의 정보통신 기업들이 참여한다.

먼저 전시회엔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 대기업들이 5G 지시국 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MWC 2023 개최식’에 참석해 참여기업 부스의 개발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비, 인공지능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뮬레이터 등 최첨단 기술 및 장비들을 소개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도 전시회에 참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열린 ‘국회 MWC’ 개최식에서 “최근 ICT 수출이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격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대

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희망이기도 하고 국민의 먹거리와 생계, 직업,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ICT 산업들이 제재 또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비태홍 기자 pth7285@

한국공항공사, 日 UAM 상용화 파트너십 맺어

(도심항공교통)

2025 오사카 엑스포 앞두고
간사이 공항그룹과 방안 논의

한국공항공사는 15일, 일본 오사카에서 간사이 공항그룹과 2025 오사카 엑스포를 앞두고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윤형중 사장은 야마야 요시유키(Yamaya Yoshiyuki) 대표와 브노와 흘로(Benoit Rulleau) 공동대표 등 간사이 공항그룹 경영진과 2025 오사카 엑스포에 선보일 일본의 UAM 상용화 준비사항과 UAM 이착륙장(버티포트), 제작사 등 교통관리 전반에 대해 상호 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 증대 및 지역 간 항공노선 확대를 공표함에 따라, 기존 오사카 지역의 노선 증대 뿐만 아니라 양국 지방도시 간

신규 노선 개설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촘촘한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사이 공항그룹은 간사이국제공항, 이타미공항, 고베공항 등 3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16일부터 3일간 고베에서 제18차 국제공항협회(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를 개최한다.

일본은 현재 국가 주도의 UAM 전담반을 구성해 엑스포 기간 중 UAM 운항을 위해 버티포트 운영자와 기체운항사를 선정하고, 기체 인증을 위한 美 연방항공국(FAA)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일본 간사이 공항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양국 지방공항 간 노선 증대는 물론 2025년 UAM 상용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창업아카데미

무료 교육프로그램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일정

A반 : 2023년 **매월 3회** 첫째, 둘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B반 : 2023년 **매월 3회** 첫째, 둘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교육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목표

실전교육 →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 성공적인 창업 배출

교육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직접 강의 (CEO 35년 경력)

교육약력

1996년 ~ 現 : 대한홍삼 대표이사
 2003년 ~ 現 : 햇터 대표이사
 2003년 ~ 現 : 햇터방송 브레인TV 대표이사
 2005년 ~ 現 : 햇터라이프 대표이사
 2009년 ~ 現 : 한삼장홍삼 대표이사

교육주관



2003. 9. 12 설립

햇터그룹지주회사

자금/투자 관리
 법무 및 행정 관리
 세무회계 관리



2003. 10. 1 설립

30천만이상 시청자보유
 방송전문기업

방송 콘텐츠 제작
 방송 기획 및 송출
 광고주 관리



1996. 9. 3 설립

국내 5대 브랜드
 홍삼전문기업

상품 개발 및 제조
 브랜드 홍보 / 관리
 대리점 관리



2009. 10. 1 설립

건강식품 / 용품
 유통전문기업

온라인 전문 유통
 오프라인 전문 유통
 해외수출 전문 유통



2005. 5. 20 설립

업계최초 계층형B2E
 E커머스 플랫폼 전문

시스템 개발
 위탁운영 서비스
 물류/상품 서비스

교육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7번출구 또는 7호선 6번출구 → 600M

교육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차장 황 선 영 010-4480-0045**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전남도, 국제적 바이오 인재양성 나선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연세대
외국인 교육생 백신 시설 견학·실습
아시아개발은행 40명 현장교육 예정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 현장형 국제적 바이오 인재양성을 위해 연세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K-NIBRT 사업단)와 서면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향후 백신 생산공정 교육을 받는 연세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의 외국인 교육생은 화순백신산업특구 백신 전주기 기반시설을 견학하고 생산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올해 10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교육생 40여 명에게 현장교육을 할 예정이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과 연세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적극 협력하고, 나아가 세계와 국가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체



연세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와 업무 협의.

/전남도

제를 견고히 할 방침이다.

앞서 두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백신 생산공정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특장점을 살려 국내의 백신 생산공정 인재 양성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을 결합한 현장형 인재양성 협력에 뜻을 모았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에 협약을 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있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21세기 대한민국 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헬스 산업의 핵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바이오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화순, 나주 등에 6개의 특화센터를 두고 있다. 특히 화순 생물약연구센터는 2014년부터 자체 시설을 활용해 매년 취업준비생 등에게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06명에게 교육을 완료했다. 이 중 157명(76%)이 취업하는 등 높은 취업률과 생산공정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입지

를 견고히 하고 있다.

윤호열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세계는 이제 미래 유망산업인 바이오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며 "바이오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화순백신산업특구를 글로벌 인력양성 중심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2월 코로나19 장기화로 나타난 국가 간 백신 불평등 현상 완화를 위해 한국을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국가로 지정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고용노동청과 복지·고용 강화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 오전 10시 시청 7층 국제회의실에서 '복지·고용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층 등 복지 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탈수급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해 복지·고용정책의 연계 강화를 선언하고, 지자체 복지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복지·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연간 1만 3000여 명의 복지사업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다.

/부산=구현재 기자 hjkoo@

김해시

한국마사회, 지역문제 해결 협약

경남 김해시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 본부와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민관공 협력체계 속에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의 기부로 다양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추진한다.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경남지역 전반에 걸쳐 이뤄졌던 한국마사회의 기부사업이 김해시에 집중된다.

지난해 2개 사업 2000만원이던 기부사업이 올해 4개 사업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

연가·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지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변의 이웃과 함께하고 일·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 연가 및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방문을 자제해 왔던 다문화 가족과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 안부를 묻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하라고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도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과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뵙고 재충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광양시

'도민과의 대화' 개최

전남도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3년 도민과의 대화'를 오는 22일(월) 오후 3시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도민과의 대화는 도지사가 22개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전남도의 비전 및 도정 주요 현안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답변하는 연례 행사이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개최했으며, 2021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올해 도민과의 대화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하동세계차엑스포'서 1200만 달러 수출협약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5개사 바이어·도내 76개사 참가

2023하동세계차엑스포가 열린 하동군에서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1200만 달러어치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경남 하동군은 경남도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켄싱턴리조트 지리산하동에서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와 연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호주, 멕시코, 브라질 등 15개 사의 해외바이어와 76개 사의 도내 수출업체가 참가해 수출에 관한 협상과 상담이 이뤄졌다. 그 결과 1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

출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성과는 하승철 군수의 적극적인 중남미 시장의 공략으로 이뤄졌으며 멕시코 가루녹차 시장 80% 점유율 목표로 지속적인 시장개척의 결과이다.

군은 앞으로 중남미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브라질과 칠레 등으로 하동 녹차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ONCEROMI 브라질과 ㈜쌍계명차(대표 김동근)은 하동 녹차와 전통차를 멕시코와 브라질에 확대 수출하기로 했다.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지역 경제발전과 녹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보성군, 휴식과 치유 숲에서 교직원 직무교육 가져, '차와 함께 떠나는 환경 교실' 특수분야 교육 시작_차밭(보림제다)에서 차잎 따기를 힐링 투어 체험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서 교직원 직무연수

'특수분야 직무연수 1기 교육' 개최

보성군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암산자연휴양림 내 치유센터에서 전국 교사 및 교육 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특수분야 직무연수 1기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특수분야 직무연수 1기 교육'은 차(茶)와 함께 떠나는 환경 교실'이란 주제로 8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총 180여 명의 교육생을 6기로 나눠 30여 명씩 1박 2일 동안 진행하며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하반기 교

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은 분야별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환경 교육(도시 숲과 미세먼지), ▲차(茶) 명상을 통한 정신 건강 및 심신 안정 교육, ▲목공예(우드버닝) 체험, ▲족욕 체험, ▲차밭 힐링 투어(차잎 따기, 차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한편, 보성군은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치유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교육 및 대학교 MT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으며 현재까지 60여 개 팀 4천5백여 명이 예약했다고 밝혔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안동시, 안전체험관 부지 최종 선정

상주시 공동... 도양리 일원 6.7만㎡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상주시와 함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1개 시·도, 1개 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를 실시했다.

지난 5월 12일 경북 여성가족플라자에서 개최된 부지 공모 심의위원회는 입지 여건, 사업의 적기 진행 가능성, 균형발전, 교통접근성, 교육수요, 인근체험관과의 거리, 추진의지,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동과 상주 두 곳을 최종 선정했다.

안동시는 안전체험관 후보지로 풍천면 도양리 일원 67803㎡ 부지를 확정하고, 경북 중심 도시로서 사통팔달의 교통접근성, 경북 균형발전의 최적지라는 점을 범시민 캠페인 운동과 함께 호소하며 최종 후보지 선정에 이끌어 냈다.

특히, 이번 부지 공모 심의위원회에서 권기창 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유치의 당위성 등을 피력하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준 점도 높이 평가됐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경주 대표 관광 '신라달빛기행' 운영

야경 활용한 체험형 힐링 행사

경주의 대표 야간관광 프로그램인 '신라달빛기행' 지난 5월 13일을 시작으로 10월 14일까지 본격 운영된다.

신라문화원이 주최하는 신라달빛기행은 지난 1994년 칠불암 달빛기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첨성대(별), 월정교(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주제로 경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활용한 체험형 힐링 관광상품이다.

올해는 그간 진행된 행사와는 달리

달빛기행에 앞서 13시 30분부터 무열왕릉과 서악동고분군, 불국사를 방문해 문화재 답사는 물론 음악회 감상과 사물소리명상 등을 추가하는 특별 이벤트도 5·10월 펼쳐진다.

프로그램은 17시 30분부터 21시 까지 20명에서 40명까지 한 팀을 이뤄 운영된다. 월정교 안내부스에서 백등을 배부 받아 계림, 월성해자, 첨성대까지 달빛을 따라 별자리 스킨 프린팅, 셀프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온라인 주문하고 매장이서 받아요”... 픽업 서비스 강화

CU, 1년새 예약픽업 24배 급증 등 배송비 절약 등에 편의점픽업 인기
 마트업계, 와인그랩·보틀빙커 등 주류 스마트 오더 서비스 ‘관심’
 올리브영 ‘오늘드림 픽업’ 서비스 투썸플레이스 ‘홀케이크24’ 론칭



고객이 GS25에서 주문한 상품을 픽업하고 있다. /GS리테일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빠른 배송에 집중하던 유통업계가 오프라인 픽업 및 서비스 강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엔데믹 이후 오프라인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난 데다, 고물가에 배달비까지 오르자 지출을 줄이려는 알뜰족이 늘면서 픽업 서비스 강화에 나선 것이다.

유통업계는 소비자의 편리한 구매 및 오프라인 매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개편하고 오프라인 픽업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서비스 향상 및 고객 경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유통 채널 중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편의점은 최근 예약 픽업 주문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으로 구매 예약한 뒤 원하는 날에 점포로 직접 상품을 찾으러 가는 서비스로 배송비 없이 다양한 할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지난해 4월 예약 픽업 주문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1년간 매출이 24배나 증가했다. 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음료(28.1%), 과자(23.4%), 가정간편식(15.6%), 빵·떡·디저트(8.4%) 등이 픽업 주문 아이템으로 특히 인기가 높았다.

세븐일레븐은 4월 매출이 지난해 동기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고 GS25도 지난해 10월 도입 이래 245%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이마트24는 지난달 예약 픽업 주문 건수가 지난해 동기과 비교해 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 연령층은 20~40대 비중이 전체 80%를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픽업 주문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인기 상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배송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충성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점주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트업계도 온라인으로 원하는 주류를 주문하고 지정한 점포에서 수령할 수 있는 주류 픽업 서비스 강화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마트는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이마트앱 내 서비스인 ‘와인그랩’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와인그랩’은 이마트에서 와인, 위스키, 리큐어(Liquor) 등을 주문한 후 이마트 매장에서 당일부터 픽업하는 스마트

오더 기능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맞춤 와인 추천 서비스, 바코드 스캔 등 유용한 쇼핑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와인그랩’을 활용하면 모바일로 상품을 쇼핑한 후 주문-결제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결제한 당일부터 전국 130개 이마트 매장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롯데마트가 출시한 보틀빙커 모바일 앱 역시 예약 후 매장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스마트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매 와인 기록 및 검색 기능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 기능을 제공하고, 음식, 시즌, 상황별로 어울리는 와인 큐레이션 콘텐츠도 함께 발행하고 있다.

H&B스토어 올리브영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약 1300개 매장과 자체 온라인몰을 운영한다. 올리브영은 2018년 당일배송 서비스인 ‘오늘드림’과 2021년 온라인몰 주문상품을 매장에서 수령하는 ‘오늘드림 픽업’을 선보인데 이어, 2022년 ‘모바일선물 픽업’ 등을 선보이며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연결하는 옴니채널 전략으로 고객에게 ‘끊김 없는(심리스)’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커피·디저트 전문점도 픽업 서비스 강화와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

는 최근 홀케이크 예약 서비스를 ‘홀케이크24’로 새로이 론칭했다. ‘홀케이크24’는 기존 모바일 앱인 투썸하트에서 제공되는 ‘홀케이크 예약’ 서비스를 리뉴얼한 것으로 기존의 예약 서비스는 예약 가능 시간과 매장별 예약 가능한 홀케이크 메뉴가 제한적이었던 반면, 이번 리뉴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3일 전 예약하면 16종 이상의 보다 다양한 케이크를 원하는 매장에서 픽업이 가능하다.

SPC그룹은 해피오더 앱을 운영하고 있다. 17일까지 SPC 브랜드 제품을 해피오더에서 매장 픽업 서비스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대 7000원 혜택을 제공한다. 18일부터 21일까지는 특정 시간에 해피오더 픽업 서비스를 통해 SPC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해피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해피오더는 차별화된 기능으로 픽업 서비스 시장에서 급성장 중이다. 해피오더 거래액 중 약 50%는 픽업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타 배달 플랫폼 평균 대비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주로 모바일 앱을 통해 픽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할인 혜택과 프로모션도 빠르게 접할 수 있다”며 “젊은 세대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앱 서비스 개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쿠광로지스틱스, 3인 각자대표체제 전환

운영부문에 강현오 대표이사 등

쿠광이 15일 쿠광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3인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강현오 운영부문 대표이사, 이선승 신사업부문 대표이사, 홍용준 경영지원부문 대표이사 3인이 수장을 맡는다.

이번 인사를 통해 CLS는 견고한 리더십을 구축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현오 대표이사는 회계, 재무, 물류 오퍼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서 2016년 쿠광에 합류해 2023년 3월부터 CLS 운영부문 대표를 맡았다. 강 대표는 CLS의 오퍼레이션과 재무 등을 담당하며 비즈니스 운영 관리 전반을 지원한다.



강현오 운영부문



홍용준 경영지원부문



이선승 신사업부문

이선승 대표이사는 로켓배송 초창기인 2014년 쿠광에 합류한 물류 전문가다. 2021년 CLS 대표이사로 선임돼 기존 택배사와 차별화하는데 기여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신사업 부문에 집중한다.

홍용준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영지원총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

했다. 홍 대표이사는 CLS의 기업법무 전반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컴플라이언스, 안전보건, 인사 등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인사노무,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자문 경험을 쌓았다.

/김서현 기자

지그재그, 여성의 삶 응원 브랜드 캠페인

백예린 등 여성 6인 메시지 전달

카카오스타일은 ‘지그재그’가 여성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하는 ‘2023년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2030 여성들과 함께 타인의 시선에 개의치 말고 스타일을 포함한 삶의 모든 방면에서 ‘나다움’을 찾길 바란다는 브랜드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가수 백예린, 유튜버 원지, 모델 배유진, 배우 신예은, 유튜버 해주, 그룹 아이브 리즈 등이 참여한다.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캐릭터를 뽐내며 소신있게 자신만의 길을 가는

여성 6인을 선정했다.

영상에는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담았다. 6인의 여성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라고 말하며, 다양한 인생에 대한 존중없이 평가하고 참견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캠페인 영상은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그재그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캠페인 모델들의 패션 스타일과 평소 즐겨찾는 아이템도 소개한다. 첫 시리즈로 백예린과 리즈 편을 두 편으로 나누어 15일과 17일에 선보이며, 원지, 해주 편을 각각 24일과 31일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11번가, 1분기 매출 2163억 54.5% 증가

당기순손실 248억 전년비 6% 줄어

11번가가 엔데믹(풍토화) 이후 e커머스 업계 전반의 침체에도 준수한 실적을 냈다.

SK스퀘어가 15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11번가의 1분기 매출액은 2163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400억원) 대비 54.5%(약 763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248억원으로 전년(265억원) 대비 6%(약 -17억원) 감소

했다. 영업손실은 318억원으로 직전 분기(455억원) 대비 약 137억원 감소했다.

11번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성장동력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월 영업손실을 전년 대비 축소시키는데 성공하는 등 사업계획에 맞춰 영업손실률을 개선하면서 성장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티몬 ‘패션 대전’ 50여개 브랜드 참여

티몬이 21일까지 패션 상품을 특가로 판매하는 ‘패션 대전’을 진행한다.

15일 ‘폴햄&지오지아 올인데이’와 16일 ‘세정글로벌 S/S 할인대전’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주말에는 총 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핵심 아이템은 반팔 상품이다. 총 1500여개의 패션 아이템을 최대 45% 쿠폰 할인율로 선보인다. 기본 아이템인 반팔티셔츠를 포함해 반바지, 여름 팬츠 등 다양한 아이템을 준비했다.

/김서현 기자

알버타주 등서 100여개 매장 운영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BBQ그룹이 캐나다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윤홍근 회장이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그룹 내 확대 글로벌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와 함께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만들어 내는 ‘BBQ DNA’를 접목해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BBQ는 현재 캐나다에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알버타주, 온타리오주 등 주요 지역에서 1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

으며 미국의 성공 신화를 접목해 시장 확대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윤홍근 회장은 2003년부터 20년 동안 치킨 세계화에 힘썼다.

실제로 BBQ는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독일, 대만, 일본, 필리핀, 피지, 파나마 등 세계 57개국에서 70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향후 2030년까지 전 세계에 5만개 점포를 개설해 나갈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CJ제일제당, K-스트리트 푸드로 글로벌 입맛 사로잡는다

떡볶이·핫도그 등 6대 품목 선정 브랜드 '비비고'로 신제품 출시 美·英·日 등 핵심 권역 본격 수출



비비고 떡볶이(컵) 3종 제품 /CJ제일제당



'케이콘 재팬 2023'에서 비비고 부스를 방문한 한류팬들.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K-스트리트 푸드'를 앞세워 글로벌 신영토 확장을 확보한다.

CJ제일제당은 떡볶이·핫도그·김밥·김말이·붕어빵·호떡의 6대 제품을 K-스트리트 푸드의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고 '비비고' 브랜드로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의 글로벌 주요 국가에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K-스트리트 푸드 첫 주자는 대표적인 거리 음식 메뉴인 떡볶이다. 오는 6월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베트남 등 CJ제일제당의 K-푸드 핵심 권역으로 수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와 편의성을 고려해 컵과 파우치 형태의 상온 제품으로 출시한다.

아울러, 8월부터는 해외에서 핫도그

와 김말이, 냉동 떡볶이 등의 신제품도 비비고 브랜드로 선보인다.

이들 제품에는 K-스트리트 푸드를 상징하는 엠블럼이 적용된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브랜드의 신규 카테고리인 K-스트리트 푸드를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Korean'의 'K'를 떡볶이, 핫도그 등 한국 분식을 연상시킬 수 있는 둥글둥글하고 길쭉한 형태의 귀여운 캐릭터로 표현했다. 엠블럼은 K-스트리트 푸드 6대 제품 패키지를 비롯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CJ제일제당은 K-스트리트 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한국 생산 제품의 수출 ▲현지생산 ▲글로벌 생산 거점에서 생산해 인접국가로 수

출하는 C2C(국가 간 생산→수출) 방식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현지 시장 트렌드 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일본에서 K-스트리트 푸드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일본 MZ세대 사이에서 한국 음식과 콘텐츠를 즐기는 '도한놀이(한국여행놀이)'가 유행하는 것에 착안, 지난 3월 일본에서 맛·건강·편의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김밥을 선보였다. 출시 후 한 달간 20만 개 이상이 판매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일본 도쿄 최대 변화가인 시부야에 'K-스트리트푸드 팝업스토어'를 열고 현지 소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비비고를 상징하는 초록

색과 K-스트리트 푸드 이미지를 활용해 한국의 포장마차를 트렌디하게 재해석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비비고 떡볶이와 냉동김밥, 핫도그, 미초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포토부스, 이벤트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도쿄 팝업스토어는 오는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

K-스트리트 푸드 출시를 계기로 CJ제일제당의 7대 글로벌 전략제품(GSP, 만두/P-라이스(가공밥)/치킨/K-소스/김치/김/롤)의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CJ제일제당은 GSP와 K-스트리트 푸드를 함께 즐기는 레시피를 제안하는 등 동시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K-콘텐츠와의 시너지도 모색한다. 미국, 일본 등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글로벌 K-컬처 페스티벌 '케이콘(KCON)'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현지 젊은 소비자들에게 K-스트리트 푸드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대응제약-입셀, '인공적혈구' 개발 나서

혈액 수급 불균형에 공급 대안 마련 'hiPSC'로 기술 확보·고도화 연구

대응제약이 입셀과 공동연구를 통해 인공적혈구를 개발,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다.

대응제약은 지난 12일 국내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기업 입셀과 '인공적혈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인공적혈구란 혈액 내에서 세포에 산소를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 적혈구

의 기능을 대체한 물질이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다양한 감염질환의 발생,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 등에 따라 혈액수급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이에 헌혈에만 의존되는 기존 혈액 공급 시스템은 곧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공적혈구 및 인공혈소판 등의 개발을 통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혈액 공급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응제약과 입셀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인공적혈구 세포주 및 공정 개발

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hiPSC)'를 이용해 인공적혈구 개발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및 생산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hiPSC란 인체 기관 중 원하는 모든 신체 조직 및 장기 등으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로, 조직의 재생과 세포치료를 통해 다양한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치료의 열쇠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입셀은 주지현 서울성모병원 류마티



이창재 대응제약 대표(오른쪽)와 주지현 입셀 대표가 인공적혈구 개발을 위한 MOU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스내과 교수가 2017년 설립한 뒤, 임상 면역학과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생명공학 기업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미약품, NASH 치료제 임상 美 순항 중 하이트진로음료, 1분기 매출 전년비 26% ↑

IDMC, 임상 2상 지속 진행 권고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중인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치료 혁신신약 '렙스 트리플 아고니스트'의 임상 2상이 미국에서 순항 중이다. 한미약품은 15일 미국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DMC)가 렙스 트리플 아고니스트의 글로벌 임상 2상을 '계획 변경없이 지속 진행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IDMC의 이번 권고는 현재 진행중인 글로벌 임상 2상의 유효성을 추가로 평가한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권고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당초 안전성 평가와 더불어 현재 임상 진행중인 3개 용량 중 유효성 측면에서 무용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용량을 제외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중간 결과에서 무용성 기준에 들

어가는 용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특정 용량군 제외없이 임상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DMC는 진행 단계 임상에서 환자의 안전과 약물 효능 등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객관성을 가진 독립위원회로서 임상 지속, 환자모집 연기, 임상 디자인 수정, 임상 중단 등을 임상 주체에 권고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2년 7월 렙스 트리플 아고니스트를 NASH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개발 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현재 섬유증을 동반하고 간 생검으로 확진된 NASH 환자를 대상으로 위약 대비 치료 유효성, 안전성, 내약성 등 확인을 위한 임상 2상을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믹솔로지·제로 트렌드에 음료 실적 ↑

하이트진로음료는 올해 1분기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보면 음료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 신장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최근 음료·주류 시장에 불고 있는 '믹솔로지(Mixology)', '제로' 트렌드에 진로토닉워터와 블랙보리 등 주요 제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음료 부문의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생수에 의존하던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난 2017년부터 음료(비생수) 사업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사업 다변화와 수익구조 개선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전체 매출액에서 음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6%에서 올해 1분기 54%까지 늘었다.

음료 부문의 호실적을 이끈 일등 공신은 믹서 브랜드인 '진로토닉워터'다.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87% 늘어 47년 브랜드 역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7분기 연속 성장 폭을 넓혀가고 있다.

위스키 열풍이 진로토닉워터 성장세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위스키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로 위스키와 토닉워터를 섞은 '하이볼' 음주가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1분기 매출은 128억원으로 6년 전인 2017년 1분기 매출(12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었다. 음료 부문에서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큰 '블랙보리'도 전년 대비 12%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원선 기자

신제품 출시

애경산업

니치 향수 섬유유연제 '르샤트라 오드퍼퓸'

애경산업에서 의류 등 섬유에 고급스러운 니치 향수의 향기를 더해주는 '르샤트라 오드퍼퓸(LE CHATELARD EAU DE PARFUM) 섬유유연제'를 출시했다.

르샤트라 오드퍼퓸 섬유유연제는 향수의 발향 단계처럼 탑 노트,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로 구성된 은은한 잔향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선호하는 향에 따라 제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탈', '블랑', '블랙 로즈' 등 3종으로 출시됐다.

피부에 직접 닿는 섬유에 사용하는 만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파라벤 6종, 인공색소 등 걱정되는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종근당건강

암환자 영양조제식품 '닥터케어 캔서코치'

종근당건강은 15일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닥터케어 캔서코치를 출시했다.

닥터케어 캔서코치는 종근당건강이 만든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첫번째 제품으로, 암환자에게 필요한 열량과 영양 성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모든 치료 단계(암진단·치료 중·치료 후)에서 영양 부족을 최소화하고 회복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이 제품은 대한암협회 의학전문과들과 함께 공동 개발하여 비타민과 미네랄 총 26종 및 암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 비타민 D, B12, B, 단백질 등을 고함량으로 함유해 암환자에게 필요한 영양 밸런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이세경 기자

대상웰라이프(주)

뉴케어, 당뇨환자 영양식 '당플랜 프로 마일드초코'

대상웰라이프(주)의 환자용 식품 국내 판매 1위 브랜드 '뉴케어'가 국내 최초로 초코맛 당뇨환자용 균형영양식 '당플랜 프로 마일드초코'를 출시했다.

신제품은 초콜릿 등 단것을 먹고 싶은 고령당 소비자가 당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당뇨영양식이다.

그간 단순당 섭취를 피해야 하는 당뇨환자들은 정백당(흰설탕)을 함유해 초코맛을 낸 시중의 음료를 섭취하기 어려웠다. 신제품은 설탕 대신 팔라티노스를 사용하고 네덜란드산 코코아 파우더를 담아 깊은 초코맛을 구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제8회
베지노믹스페어

vegan & **green**
Festa & Fe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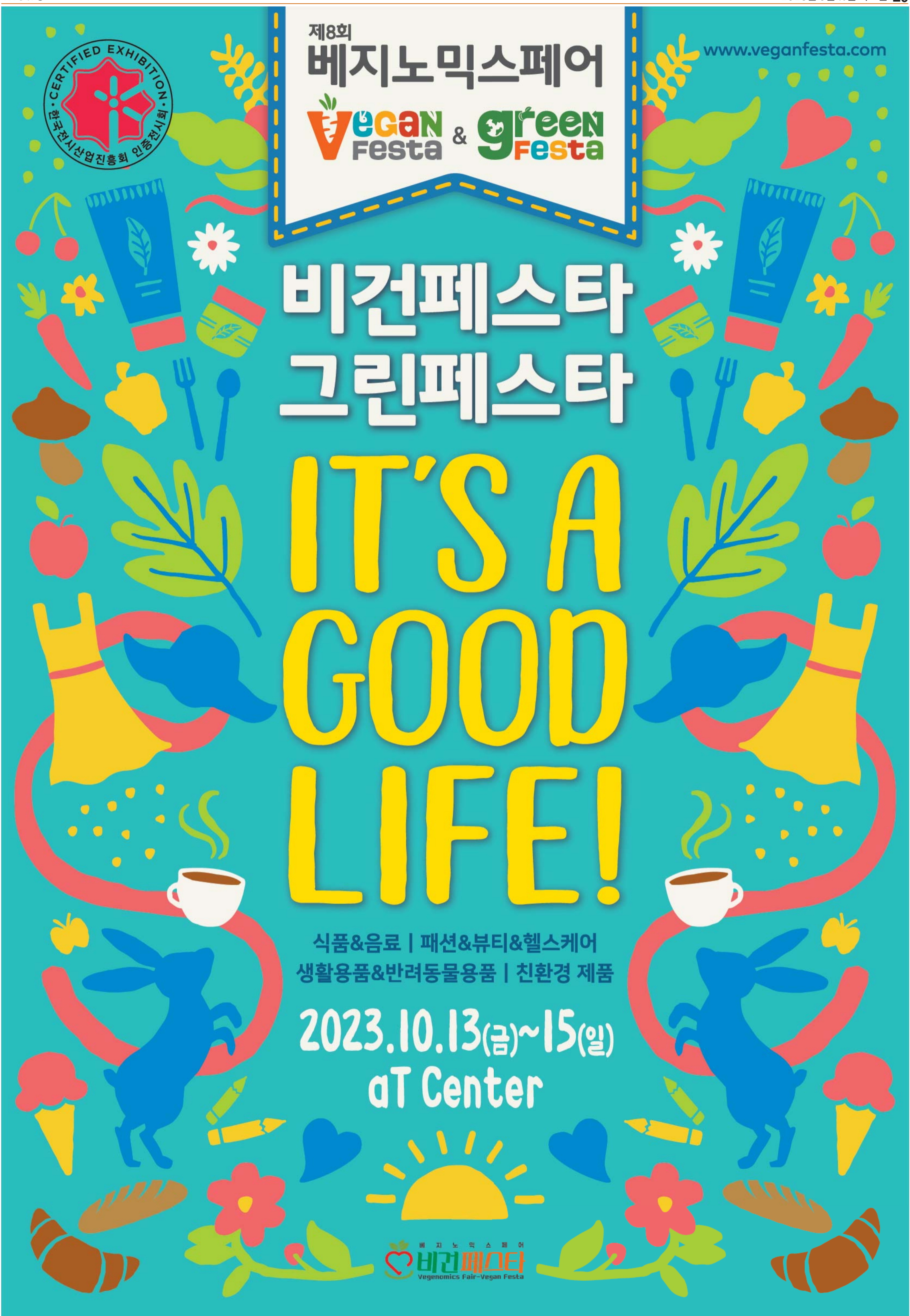
www.veganfesta.com

비건페스타
그린페스타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헬스케어
생활용품&반려동물용품 | 친환경 제품

2023.10.13(금)~15(일)
aT Center





제2회 'DGB금융그룹회장기 야구대회' 개막

DGB금융그룹은 대구시민운동장야구장에서 '제2회 DGB금융그룹회장기 야마추어야구대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야구대회는 대구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하고 DGB금융이 후원하며, 오는 28일까지 대구시민운동장야구장과 강변야구장 등에서 경기가 펼쳐진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DGB금융그룹



동국제강,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2억 쾌척

동국제강은 15일 송파구에 위치한 대한소방공제회관에서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장학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왼쪽)과 이형철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이 15일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 2억원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제강



K Car, 소아암 환우 지원 마라톤 대회 참여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가 소아암 환우를 돕는 기부성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이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케이카 임직원들이 '소아암환우돕기 제20회 서울시민마라톤대회'에 참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 Car



구미대, '동성로축제' 참여... 체험부스 인기몰이

구미대학교가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2023 제34회 동성로축제'에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체험 기회를 마련하며 인기를 끌었다. 15일 구미대에 따르면, 구미대는 옛 대구백화점 앞 거리에 마련된 3개 부스동에 4개 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헤어스타일링, 드로잉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구미대

인사

- ◆국립생태원 △삼임이사(보전연구본부장) 권영한
-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주원철

부음

▲정쌍금님 별세, 육종천(대전일보 총북본부장)씨 모친상 = 15일 오전 6시, 육천농협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043-731-4443

삼성전자-한국은행,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양사 MOU... 생태계 발전 모색
재난상황 활용안 등 연구 지속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이 15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오프라인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의 연구를 지속하고 오프라인 결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 모의실험 연구'의 2단계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부사장이 참석했다.



2023년 5월 15일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이 15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오프라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한국은행 이승헌 부총재,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 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거리 무선 통신(NFC)을 통해 기기 간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했다.

송금과 결제는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보안 칩셋(eSE) 내에서 이뤄진다. 해당 칩셋은 보안 국제 공통 평가 기준 CC(Common C

riteria)에서 EAL(Evaluation Assurance Level) 6+ 등급의 하드웨어 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

양사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워치 등을 활용해 오프라인 결제 시 우려되는 보안위험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재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CBDC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연구협력 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CBDC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재생용지 박스 도입... 친환경 택배문화 이끈다

SK에코플랜트-태림포장 MOU
연간 5000t 규모 폐지 재활용

CJ대한통운이 재생용지를 사용한 택배 박스를 도입하고 친환경 포장 확대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SK에코플랜트, 태림포장과 '종이자원 독립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전국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연간 5000톤 가량의 포장 박스와 서류를 활용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생박스를 개발한다. 제작한 박스는 CJ대한통운 군포 풀필먼트센터에서 우선 사용한다. 이후 전국 400여 개



(왼쪽부터)SK에코플랜트 에코랩센터 김병권 대표, CJ대한통운 안재호 이커머스본부장, 태림포장 정병채 부사장이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도 재생박스를 사용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연간 3000만개 가량의 택배 박스를 쓰고 있다.

박스 생산은 국내 1위 골판지 업체인 태림포장이 맡는다. SK에코플랜트의 폐기물 관리 솔루션인 '웨이

블(WAYBLE)'을 활용해 재활용 원료의 출처 및 생산 공정에 대한 추적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보증한다.

CJ대한통운은 박스 디자인도 변경했다. 잉크 사용을 최소화하고 박스 겉면에 한 가지 색만 활용하는 1도 인쇄를 적용했다. 대신 '자원순

환을 통해 제작한 재생박스(Closed Loop Recycling)'라는 안내 문구를 적어 친환경 이미지를 더했다.

아울러 물류 업계 최초로 '완결적 순환체계(Closed Loop)'도 구축했다. 완결적 순환체계란 자체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해 재활용품을 생산, 자원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내는 자원순환 체계를 말한다.

CJ대한통운 안재호 이커머스본부장은 "CJ대한통운의 국내 최대 물류 인프라와 SK에코플랜트의 첨단 폐기물 측정 기술, 태림포장의 친환경 소재 개발 역량 간 시너지를 창출해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고진영, 美 LPGA 파운더스컵 우승

합계 13언더파 275타... 연장 승리

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총상금 30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고진영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이로써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친 고진영은 이민지(호주)와 동타를 이룬 뒤 1차 연장에서 승리해 정상에 올랐다.

세계랭킹 3위 고진영은 우승상금 45만 달러(약 6억원)를 거머쥐었다. 지난 3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고진영이 14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CC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정상에 올라 트로피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연십 이후 약 두 달만의 시즌 2승으로, 통산 15번째 우승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

카카오게임즈, 'E' 중심 사내활동 강화

(환경)

카카오게임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영역 중 환경(E) 문제에 대한 사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친환경 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15일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양한 임직원 참여형 친환경 활동을 전개, 사소한 곳에서부터 자원 순환 등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1월 '크루아이템 기부 캠페인'을 실시, 약 2주간 사내 설치

된 기부함에 임직원들이 직접 활용 가능한 리유, 도서, 장난감 등의 물품을 기부해 불필요한 생산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줄이고 자원 순환을 도모했다. 지난 3월에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 사내 재사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다회용컵'을 도입, 임직원들이 음료를 시음할 때 사내 카페테리아에 비치된 다회용컵이나 개인컵, 텀블러 등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동아제약-경찰청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동아제약은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박카스가 경찰청과 함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의 요청으로 전국 대부분의 약국에서 볼 수 있는 박카스 종이봉투에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문구를 삽입해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행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오비맥주 "근로·자녀 장학금 신청하세요"

오비맥주가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오비맥주는 5월 한 달간 정부 장려금 신청 홍보 문구를 인쇄한 카스 355ml 6캔 패키지를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맥주 점유율 1위 브랜드인 카스를 활용해 근로·자녀장

려금 신청 대상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곱

서울시, '공공주택 매입절차' 간소화·빌트인 설치비 반영

매입시기 일반분양 시점으로 기준 개선 물량 늘리고 품질 높여 전용 32㎡ 이하 냉장고 등 설치 "고품질 공공주택 확보 할 것"

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 기준을 개선해 물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시 적용하는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택 매입 업무 처리 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건설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로 공공주택으로 지어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절차를 담은 기준이다. 시는 2010년부터 13년간 정비사업 등을 통해 1만319호를 사들여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왔다.

이번 매입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가 '일반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시 관계자는 "당초에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 일반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시 공공주택 건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사업 중 주거 여건이 우수함에도 절차상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시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의 설치

비용을 반영기로 했다. 시스템에어컨, 불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기본 품목으로 갖추고, 전용 32㎡ 이하 원룸에는 냉장고와 세탁기를 매입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 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월드 시민랜드'에서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키우기 서비스 '메타서울펫' 실행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디지털재단

메타버스·디지털 활성화 시의회 "전문가 영입 필요"

서울디지털재단에 콘텐츠개발 건의 재단, 월드 시민랜드 운영 연계해 시민중심 창작 생태계 조성키로

서울시의회가 메타버스 활성화,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범위 확대, 디지털 전문가 영입을 서울디지털재단에 주문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11건, 기타(자료제출 등) 7건을 접수해 25건에 대한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 나머지 3건은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재단에 건의했다.

이에 재단은 올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월드 시민랜드'(메타버스 서울

가상공간) 운영을 연계해 시민 중심의 메타버스 창작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공모전, 서포터즈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우수작을 메타버스 서울에 탑재해 월드 시민랜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의회는 기존 '노노(老老)케어'에 한정됐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의 범위를 넓히라고 재단에 지시했다. 재단은 어르신이 어르신에게 스마트 기기 활용법 등을 알려주는 '어디나 지원단'(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의 도움 대상을 모든 디지털 취약 계층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서울 전역 어르신 생활 거점 인근에 스마트클리닉 센터(121개)를 마련하고 어디나 콜센터를 상시 운영해 접근성을 높여 디지털 약자들의 교육 수요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 조성

자족기능 확보·일자리 창출 등 기대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성장 혁신산업의 융복합 공간인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을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동동 일원 58만 3000㎡ 규모다. 제1·2판교와 연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자족활성화를 위해 1~4번 용지 약 6만 5000㎡에 연면적 약 47만 5000㎡ 규모의 건축물인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職)·주(住)·락(樂) 융복합 공간인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은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강점과 연계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4차산업 인재와 기업을 적극 유치, 이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첨단시설을 갖춘 공공기숙사를 제공하고, 일과 후에도 상업·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소극장, 공원, 어린이집, 커뮤니티시설 등도 배치할 방침이다.

대학교(원)도 유치해 고용 선순환, 산학연 연구개발(R&D) 거점의 역할도 부여한다. 개방형 작업공간(오픈플랫폼) 등 공유형 혁신 공간을 제공,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지난 3일 경기도 수원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모여라 친구들, 밖에서 놀자'에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서울·경기 등 9개 지정

서울·경기·인천 등 9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 등 9곳을 선정하고 13개 과제에 총 482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관할인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의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곳에 다녀도 균일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에 선도교육청을 지정해 추진 정책 과제를 발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원은 총 482억원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424억원, 58억원 부담한다. 운영비로 인천과 경기, 충북, 전북은 만 3~5세 어린이집 원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는 유아학비 감액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현진 기자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 공모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안에 조성되는 '(가칭)제2세종문화회관'의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도시·건축·조경·문화·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 기본 계획에는 한강과 가까운 곳에 제2세종 문화회관을 배치해 여의도공원과 한강공원을 통합하고 녹지 축을 연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모 참가자는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집객시설 ▲대공연장·중극장·연습실·

전시장·교육시설 같은 문화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지하 주차장 등을 설계하면 된다. 대상지는 여의도공원 서북단 3만4000㎡ 규모 부지이다.

시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단, 고도 제한(65m)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는 최대 50m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주변과 조화,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등 제2세종문화회관 예정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토록 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빅데이터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서울시는 KT,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민간기업·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아 분석한 뒤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경영·마케팅

컨설팅을 제공,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참여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 상권·고객 분석을 통한 주요 타깃 설정, 매체 활용 홍보·마케팅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1 | 해질 / 19:19

5월 16일 (화)
음력 : 3월 27일

수도권 날씨
17~3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7/29, 동두천 15/29, 가평 4/22, 파주 13/27, 서울 17/30, 양평 14/31, 인천 16/25, 수원 17/29, 용인 17/29, 평택 15/31, 백령도 12/1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비대면 진료' 시범 산 넘어 산...이번엔 조제약 배달 갈등 /사진 뉴스스
- ▲ '동거녀와 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9일 선고... "엄벌 정당하게 받겠다"

- ▲ 특허청 사법경찰, 해외 유명상표 단위조 귀금속 제조범 검거
- ▲ 조규홍 "보건의료인 단체행동 시 법령·매뉴얼 따라 조치"



- ▲ '중대재해법 1년'에도 1분기 산재사망 128명...19명 감소 그쳐 /사진 뉴스스
- ▲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물량 확보 돕는다... 규제 개선



“온라인 주문하고
매장가서 받아요”
픽업서비스 강화
L1



Life

CJ제일제당
K-스트리트 푸드로
글로벌 시장 공략
L2



실종아동 찾고, 수익금 기부... “차곡차곡 희망 모아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푸드올로지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푸드올로지가 브랜드 개성을 담아 사회공헌활동 ‘Give U’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Give U’ 캠페인은 정기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에 희망을 더하는 푸드올로지의 캠페인이다. 특히 소비자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D2C 기업이라는 점을 살렸다.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후원 활동까지 나서며 지역사회 내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기업’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푸드올로지에 따르면 이 회사의 ESG 활동은 고객 접점 기반 나눔활동을 기획하고 해당 활동들은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와 가까운 D2C 장점 살려 일회성 아닌 정기적인 나눔 실천 실종아동·장애인 찾기 캠페인 진행 택배상자 활용, 실종자 전국에 알려

‘실종아동 및 장애인 찾기 캠페인’은 지난해 8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진행 중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 치매 환자에 대한 실종 신고 건수는 2019년 4만2390건, 2020년 3만8496건, 2021년 4만1122건이다. 지난 5년간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에 대한 실종 신고 접수 건수를 합치면 총 55만4514건으로 아직 찾지 못한 실종아동은 32명, 장애인 42명, 치매 환자 32명이다.

장기 실종자의 가족들은 수년이 흘러도 계속해서 실종자를 찾으며 일상을 견디는데,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와 미디어 제보 등을 통해 수십 년 만에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푸드올로지는 매년 3만 건가량의 아동 및 장애인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실종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모색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진행 하는 ‘택배 상자’를 활용한 캠페인은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널리 알리는 활동이다. 고객에게 배송되는 택배 상자 외측에 ‘실종자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택배 상자는 고객들이 일상 속 자주 접할 수 있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물론, 전국 각지로 유통되면서 해당 캠페인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 1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진행 중인 ‘실종아동 및 장애인 찾기 캠페인’의 모습. 고객이 받는 택배 상자에 실종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라벨을 붙였다.
- 2 지난해 10월 푸드올로지가 미혼한부모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진행한 기부금 전달식.
- 3 전달한 기부금은 미혼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먹거리가 돼 비용부담을 줄이는 데 쓰였다.

/어엿트, 푸드올로지



/유투이미지

실종자라벨에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실종자의 인적 사항과 실종 당시 모습 등이 담겨 있으며, 보다 많은 실종자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분기별로 라벨을 교체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품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고 주변 이웃과 나누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비타민 함유 제품 ‘헤이! 구미’와 ‘헤이! 비타’를 판매한 수익금의 7%를 적립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기부금은 소아암 아동을 돕기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전개하는 ‘애들아, 학교 가자’ 캠페인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애들아, 학교 가자’ 캠페인은 소아암 아동의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학습 지원, 심리 상담 등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현실적인 도움은 물론 정서적인 측면까지 후원한다.

취약계층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 줄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수익금 기부 한부모가정 영유아 이유식 지원사업

경제적·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소아암 아이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응원한다. 일회성 기부가 아닌 장기적인 정기 기부 활동으로 간접적으로는 푸드올로지의 고객들도 소비를 통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셈이 된다. 푸드올로지는 기부를 촉진하고자 인기 유튜브 채널 ‘오디지(ODG)’와도 협업해 ‘헤이!’ 제품들을 내놓고 기부 활동 과정도 공개하고 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도 세심하게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에 미혼한부모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푸드올로지는 미혼한부모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해 보다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후원 중이다. 기부금은 영·유아 이유식 지원 사업에 사용됐으며, 아이들에게는 균형 잡힌 식단을 지원하고 부모에게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녀와의 교감, 취업, 학업 등에 집중할 기회를 제공했다.

푸드올로지 관계자는 “푸드올로지의 Give U 캠페인은 ‘동반성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고민하고 실천 중이다”라며 “올해도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1위에 1승 주고받은 한화, 이번엔 2·3위와 격돌
▲김시우, PGA AT&T 바이런 넬슨서 아쉬운 준우승 /사진 뉴스스

▲잇단 강원 지진에...전문가들 “더 강한 지진 가능성도”
▲‘벌써 6승’...NC 페디·LG 플러트코, 다승왕 경쟁 ‘후끈’



▲고진영, LPGA 파운더스컵 연장전서 역전 우승...통산 15승 달성
▲UFC 여자 파이터 김지연, 5연패 수렁 /사진 뉴스스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찾기
KB Good Job

오늘의 취업준비를

내일의 출근준비로



KB굿잡 취업박람회 | KB국민은행이 주최하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회에 걸쳐 5천여개의 우수기업과 114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약 3만 2천여건의 일자리를 연결했습니다

단일규모국내 최대 2023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2023. 5. 22.(월) ~ 23.(화) 서울 COEX B홀

주최 | KB국민은행 | 주관 | 동반성장위원회 | 한국무역협회 | KBIZ 중소기업중앙회 | koita 한국성업기술진흥협회 | KOSDAQ 코스닥협회 |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국방인력고용센터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sba | 한국산업단지공단 | HRDK 한국산업연혁공단 | 영·도·일·자·리·제·단 | 전국대학교 취업관리자협의회
후원 | 교육부 | 대한민국 국방부 |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서울특별시 | KB금융공익재단

 KB 국민은행